No.1 시니어 전문 케어
센터메디컬그룹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

기독일보

심성통운 SAMSUNG SHIPPING
귀국이사·타주이사·시내이사·차량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T: (877)580-2424

Tel. 213-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성령께서 이끄시는 화해의 신문 WWW.CHDAILY.COM FRIDAY, January 17 2025 Vol. 944

美 역대 최악 산불에 기독교 단체들 지원 나서

남부 캘리포니아 일대에 발생한 대형 화재로 수많은 이들이 집을 잃는 등 피해를 입은 가운데, 미국 여러 비영리단체들을 비롯해 한인 교계에서도 이들을 위한 도움의 손길을 나누고 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시티서브(CityServe)와 월드헬프(World Help)는 지역교회와 지역사회 파트너들과 협력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구호품을 제공하고 있다.

강풍과 건조한 기상 조건으로 인해 발생한 산불은 이 지역 전역에 광범위한 피해를 초래했다. 펠리세이즈, 이튼, 허스트, 리디아, 선셋 화재를 포함한 화재로 인해 1만 2천 채에 이상의 구조물이 파괴되었고, 20만명 이상의 주민이 이주했으며, 최소 24명이 사망했다. 맹렬한 불길로 인해 지역 사회는 위기에 처해 있으며, 응급요원들의 끊임없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여전히 절박하다고 CP는 전했다.

시티서브(CityServe)와 월드헬프(World Help)는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및 인근 지역의 피해자들에게 즉각적인 구호품을 제공하기 위해 지역 교회와 협력하고 있다. 이들은 물, 식량, 위생용품, 의류 등 필수적인 지원 물자를 배치하고, 지역사회 파트너들과 함께 가장 시급한 피해자들에게 자원을 전달하고 있다. 시티서브는 교회와 지역사회 파트너로 구성된 네트워크를 통해 효율적인 지원을 목표로 하며, 구호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복구 작업에도 집중하고 있다.

칼 하르게스탐 시티서브 네트워크 대표는 "우리는 이 비극의 규모와 희생된 생명에 마음이 아프다"며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지역에 필요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분배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피해자들이 삶을 재건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월드헬프는 LA 카운티의 피해자들에게 임시 대피소, 식량, 아기용품, 위생용품 등을 보내며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월드헬프의 노엘 브루어 예이츠 회장은 "이번 산불로 많은 이들이 모든 것을 잃었고, 복구 작업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며 "우리는 그들이 치유와 재건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남가주 지역 한인 교회들도 피해를 입은 이웃들을 돕기 위한 구호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나성영락교회(박은성 목사)는 산불 발생 후 전력 차단으로 예배를 진행할 수 없었으며, 사랑의빛선교교회(윤대혁 목사)는 6일부터 11일까지 한 주간 동안 기도회를 취소하고, 구호활동을 시작했다.

평강교회(송금관 목사)는 지난 12일 교인들과 함께 산타아니타 파크에 구호물품을 전달했다. 사랑의빛선교교회는 오는 19일에 의류, 식수, 마스크, 이불 등 구호품을 전달할 예정이다.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인근 퍼시픽 팰리세이즈에서는 산불로 인해 집과 차량이 불에 타 잔해만 남았다.

또한, LA동부 치노필스에 위치한 선한목자교회(고태형 목사), 토렌스조은교회(김우준 목사), 토랜스제일장로교회(고창현 목사) 등 여러 교회들도 특별 헌금을 모아 화재 피해자들에게 구호물품과 재정적 지원을 전달할 계획이다. LA 로스펠리즈연합감리교회(이석부 목사)와 감사한인교회(구봉주 목사)도 이미 구제 헌금을 모금했다.

남가주교회협의회(회장 샘 신 목사)는 마스크 5,000장을 전달했으며, 구호물품을 18일에 전달할 예정이다. 강혜진 기자

이스라엘과 하마스 휴전 및 인질 석방 합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5일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가자지구에서의 휴전과 인질 석방에 합의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협상이 마침내 타결됐다"며 이번 합의가 가자지구 내 무고한 시민들의 고통을 끝내고 인질들이 집으로 돌아갈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발표는 외신들이 휴전 소식을 전한 후 나온 것으로, 바이든 대통령은 직접 담화에서 협상 타결 사실과 세부 내용을 알렸다. 그는 이번 합의가 하마스의 2023년 10월 7일 이스라엘 기습으로 시작된 15개월간의 분쟁을 마무리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협상의 세부 단계와 향후 과정을 설명했다.

합의안은 총 세 단계로 이루어진다. 첫 단계는 6주 동안 지속되며,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 내 인구밀집지역에서 철수하고 하마스는 다수의 인질을 석방한다. 이에 대응해 이스라엘은 수백 명의 팔레스타인 수감자를 풀어주고 가자지구 내 민간인들이 거주지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 동시에 인도적 지원이 증가해 가자지구의 주민들에게 필수적인 물자가 제공될 예정이다.

6주간의 휴전이 진행되는 동안 양측은 영구적인 종전을 위한 협상에 나선다. 바이든 대통령은 협상이 예상보다 길어지더라도, 대화가 지속되는 한 휴전도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LA베이직교회가 창립 1주년 기념 감사예배를 12일 오후 12시에 거행했다(관련기사 8면). ⓒ기독일보

두 번째 단계에서는 모든 생존 인질들이 석방되고,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에서 완전히 철수한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에서는 사망한 인질들의 유해가 가족들에게 인도되며, 가자지구의 대규모 재건이 시작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합의가 중동 지역 내 변화와 미국의 끈질긴 외교적 노력 덕분에 가능했다고 평가하며 하마스가 심각한 타격을 입었으며, 이란과 헤즈볼라 또한 약화되었다고 언급했다.

홍은혜 기자 ➔ 2면에서 계속

당일송금 당일지급
송금·환전
한국 돈이나 달러가 필요하신 분?
입금 즉시 캐쉬 OUT/신속 정확
소액~고액 환영/매월하시는 분 우대
타운내 최고로 저렴한 택배(한국택배)
$ 미국 ↔ 한국 ₩
7Day 24hours (213)400-6363


www.marhlaw.com
어려운 시기에 힘드신 분들의 힘있는 변호사
신실한 벗이 되길 희망합니다!
■상법/부동산법 ■뱅크럽시 YouTube "마동환 법률상식"
마변호사그룹에서 여러 분야의 법적문제로 인한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워지는 평안을 체험하십시오.
마동환 변호사그룹 MARH & ASSOCIATES Attorneys at Law
대면·전화상담 예약 213.820.3704

태양광, 솔라!!
2025년 대박
상업용 건물 Tax Benefit 60% ~ 80%
연방ITC: 30% 이상
솔라 설비의 감가상각비 중 60%를 다음해에 공제 가능(2024년 설치 시)
윈금 회수기간: 3년~6년
전기로 절감: 최대 90%
BTS SOLAR DESIGN 213.500.8000

2025 HAPPY NEW YEAR
은혜한인교회 GRACE MINISTRIES INTERNATIONAL
한기흥 담임목사
신년 축복 성회
"0점 인생 명품 인생"
2025.1.23(목)~26(주일)
목(7:20pm),금(5:20am,7:20pm)
토(6:00am,7:20pm),주일(1부~4부)
장소: 은혜한인교회 비전센터(본당)
강사: 하근수 목사(동탄시온교회 담임)


하근수 목사

은혜한인교회 150 S. Brookhurst Rd. Fullerton, CA 92833 TEL : 714.446.1000 www.gracemi.com

화재로 시작된 2025년, "무엇을 의지할 것인가"

ANC온누리교회, 사랑의빛선교교회 화재 관련 메시지 전해

2025년 새해가 시작된 지 일곱째 되던 날 미국 국립기상청(NWS)가 적색 깃발 경보를 발령했다. 경보가 발생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캘리포니아 남부 곳곳에 불길이 솟아오르더니 기아에 허덕였다는 듯 순식간에 수만 채의 집을 집어 삼켰다.

화마가 남기고 간 상흔이 그대로 남겨져 있는 가운데 ANC온누리교회와 사랑의빛선교교회는 이번 화재와 관련된 메시지를 전했다.

1월 12일 주일 ANC 온누리교회 김태형 목사는 "마리아의 믿음"(눅 1:26-38)이라는 제목의 주일 설교에서 모든 것이 불확실한 가운데 진정한 평안이 어디서 오는지 이야기했다.

"우리 삶의 어떤 곳이든, 어느 누구도 안전을 장담할 수 없었다. 대피 명령을 받고 집을 떠나야 했던 분도 계시고 저 역시 무엇을 챙겨야 하나 고민했다. 식구, 여권, 결혼증명서, 랩탑,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한 것일까? 우리 삶은 정말 예측할 수 없다. 보장되고 장담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 2025년도도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미래가 두려울 수밖에 없다. 우리가 의지하는 안전, 평화, 건강, 평화, 물질, 이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없어질 수 있다."

그는 마리아의 믿음을 본받아야 한다며 "스스로 구원을 이루려는 우리의 모습, 우리 가족을 구원하려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 그러나 우리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고 했다.

"마리아의 믿음은 신앙은 관계임을 보여준다. 우리 신앙은 종교가 아니다. 이 차이를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왜냐하면 우리는 종교를 너무 좋아하고 틈만 있으면 종교로 달려간다. 내가 한 어떤 노력으로 신의 마음을 움직여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궁극적 의미를 찾으려 하는 것이 종교이다. 그래서 종교는 Me-Center이다. 내가 가장 중요하고, 내 감정이 가장 중요하고 일방적이다. 그러나 우리 신앙은 상호적이다. 아니,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오신 것이다. 여기에는 사랑이 있다. 종교에는 신이 있고 인간이 있지만 신앙에는 아버지가 있고 자녀가 있다. 신랑이 있고 신부가 있다. 하나님이 나를 알고 내가 하나님을 알아 가는 것, 이것이 관계이다. 사랑이 바탕이 된, 이 관계의 목적은 구원이다."

"그런데 이 관계의 깊이가 어느 정도인가? 예수님은 우리의 두려움과 고난을 직접 통과하셨다. 우리 아픔과 고난은 예수님은 다 경험하셨기에 우리를 공감하신다. 예수님은 죽음 앞에 선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머물면, 그 관계에 있으면 어떤 상황도 뺏을 수 없는 우리 영혼 깊은 곳에 평강이 시작된다."

김 목사는 오즈월드 체임버스(Oswald Chambers)의 말을 인용하며 설교를 마쳤다.

"하나님에 대해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세상 모든 것이 두려워진다."

ANC온누리교회는 이번 화재로 두 교인의 저택이 소실되었다는 소식을 전하며, 이번 산불로 모든 것을 잃고 슬픔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으로 다시금 일어설 힘과 지혜를 주시도록. 이번 산불로 어려움을 당한 이웃들에게 긍휼의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도울 수 있도록" 기도를 요청했다.



김태형 목사(ANC온누리교회)와 윤대혁 목사(사랑의빛선교교회)는 캘리포니아에서 발생한 화재로 수 많은 이들이 삶의 터전을 잃은, 예상하지 못한 사건 앞에서, 무엇이 진정으로 영원한 것이며, 무엇을 의지해야 하는지 설교했다.

사랑의빛선교교회(담임 윤대혁 목사)에서는 1월 12일 주일예배에서, 시편 23: 1-2절을 바탕으로, "여호와 라아,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신앙의 밑그림을 그려 나갔다.

윤대혁 목사는 교인 몇 가정이 화재로 피해를 입었다며, "내 삶의 현장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는 질문하게 하는 큰 화마에 휩싸였다. 이해할 수 없는 현실 가운데서 시편의 말씀이 우리 삶에 진짜 역사할 수 있는가. 여러분 과연 우리들의 삶에 주님이 나의 목자 되신다는 것이 어려움과 위기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일까"라는 질문으로 말씀을 열었다.

그는 한국인의 정서 뿌리 깊은 곳에 '불안'이 자리 잡고 있다며, 이 불안을 유발하는 근원이 무엇인지, 그 불안을 넘어서는 방법이 무엇인지 이야기했다.

"한국인의 정서 가운데 뿌리 깊은 곳에 불안이 있다. 물질, 자녀, 사업의 일터를 목자로 여길 때가 있다. 영원하지 않은 것을 목자로 삼기 시작하면 불안하고 초조하다. 이런 것은 다 지나가지만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은 선한 목자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약속이다."

그는 이번 화재로 수많은 이들이 집을 잃은 상황을 안타까워하며, 인생의 어떤 것도 보장될 수 없다고 했다.

"팰리세이드의 수천만 불 되는 집을 지으며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누가 상상했을까. 이번에 보험이 많이 캔슬되었고, 또 강제적으로 끊어졌다고 한다. 인생의 모든 것은 보장할 수 없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을 인도하기 위해서 앞서 일하시는 분이시다. 어디에 풀이 있는지 물이 있는지를 미리 찾아서 양들을 이끈다."

그는 "조지 뮬러는 고아의 아버지라고 불리고 산업혁명 시대 때 2,500명이 되는 아이들을 하루도 한 끼도 거르지 않고 먹이고 입혔고, 1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던 기도의 산증인으로 소개되지만 사실 그는 여호와 라하 목자 되신 하나님을 믿고 산 사람이다. 그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고아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걸 믿고 하나님께서 먹을 것과 입을 것, 살 것을 날마다 공급해 주실 것을 믿었던 데 있다"고 했다.

그는 "제 인생에서도 하나님의 목자 되신 손길을 참 많이 경험했다"며 목회자 자녀로 자라며, 육성회비조차 낼 수 없었으나 등록금 걱정 없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고등학교 때 선교부장으로 세워지고, 장학금을 받게 되었던 체험을 나눴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 없고 그리고 완전한 거 없다. 다 변하고 다 사라지고 다 떠난다. 나 자신이 영원하지 않다. 이럴 때 나를 떠나지도 않고 또 나 역시도 떠날 수 없는 분은 주님이시다. 우리 주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며 이 어려움의 길을 승리하고 나아갈 수 있길 축원한다."

주디 한 기자

→1면 기사 〈이스라엘과 하마스, 휴전...〉에 이어서

바이든 대통령은 "하마스의 군사 조직이 사실상 파괴됐다"고 설명하며, 이러한 상황이 협상을 촉진했다고 분석했다.

또한, 이번 합의는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해 5월 제안했던 휴전안과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이루어졌다.

이번 휴전 합의는 바이든 대통령의 퇴임을 닷새 앞둔 시점에서 발표되었다. 트럼프 당선인은 자신의 대선 승리가 이번 합의의 계기가 되었다고 주장했으나, 바이든 대통령은 "합의안은 내가 제안한 내용과 같다"며 트럼프의 주장에 선을 그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차기 행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이번 합의가 성공적으로 이행되도록 할 것"이라며 양측의 긴밀한 협력을 당부했다. 한편, 그는 가자지구에 여전히 남아있는 미국인 인질들과 그 유해를 돌려보내는 것이 앞으로의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다.

국제사회에서도 휴전을 환영하는 메시지가 잇따랐다.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유엔은 이 (휴전)협정의 이행을 지지한다"며 "우리의 우선순위는 이번 분쟁으로 인한 엄청난 고통을 완화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했다.

이번 합의는 15개월간 이어진 분쟁과 고통 속에서 새로운 국면을 열 가능성을 제시하며, 가자지구와 중동 전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산불 피해자 후원 위한 무료 커피 나눔

시소 커뮤니티가 최근 발생한 LA 지역 산불 피해를 돕기 위해 기부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1월 18일 (토)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부에나파크에 위치한 시소 빈즈 앤 커피에서 진행된다.

Seesaw Beans and Coffee는 화재 구호를 위한 후원금을 직접 받는 대신, 방문객들은 언론을 통해 검증된 단체 또는 자신이 원하는 구호 단체 링크를 통해 어떤 금액이라도 기부할 수 있다.

행사 당일, 단체의 QR 코드를 준비하여 기부를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기부를 완료한 후, 영수증, 이메일 확인서, 또는 QR 코드 확인을 바리스타에게 보여주시면 메뉴에서 원하는 음료를 무료로 제공한다. 시소 빈즈 앤 커피는 발달장애 성인들에게 고용 기회를 창출하며 커뮤니티와 함께 성장하고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 가고 있다.



Seesaw Beans&Coffee가 최근 발생한 LA 지역 산불 피해를 돕기 위해 특별한 기부 이벤트를 연다.@시소커뮤니티

Seesaw Communities 정보 제공.



억울한 감옥살이 재소자를 위한 주안에호프 구명운동

92년 택시기사 살인 사건 범인 누명으로 종신형 받아

25년간 억울한 감옥살이를 한 한국 태생 화교의 사연이 알려져, 주안에교회 교도소 사역팀 '주안에호프'이 구명 운동을 벌이고 있다.

그의 사연은 1992년 코리아 타운에서 발생한 택시기사 살인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택시기사로 일하고 있던 이인직 씨는 이 사건으로 목숨을 잃었으며, 이 사건에 연루되어 있던, (케니 리 씨에 따르면, 실제 살인범인) 갱단의 두 멤버들은 감옥에 갇히게 된다.

당시 이 갱단의 멤버였던 케니 리 씨는, 살인이 있기 전 갱단의 두 멤버들로부터 보석상 강도를 위한 라이드를 부탁해 받았지만 투잡을 뛰고 있어 시간이 안 된다며 거절했다. 이 갱원 두 명은 보석상을 털기 위해 택시를 불렀고, 택시 기사가 목숨을 잃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으로 갱 멤버 둘은 체포되어 수감됐다.

이로부터 약 8년이 지났을 때, 이 갱원 두 명이, 택시 기사를 죽인 사람으로 케니를 지목했고, 케니 리 씨는 92년도 택시기사 살인 사건의 범인이란 누명을 쓰고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 받아 지금까지 25년째 수감 중이다.

그에게 2014년, 한 통의 편지가 배달된다. 교도소 사역팀(당시 팀장 조명휘 집사)이 캘리포니아 교정및재활부(California Department of Corrections and Rehabilitation)에 들어가 한국 사람 이름처럼 보이는 이들 30명을 무작위로 골라 편지를 써보냈다. 성경이나, 구원에 대해 이야기하기보다는 친구가 되고 싶다는 내용을 써서 보냈고, 그 중의 15명에게서 답장이 왔다. 케니 리 씨도 이 중의 한 명이었다.

교도소 사역팀장이었던 조명휘 집사는, 케니 씨로 부터 '자기는 한국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답장을 받았다고 말했다. 편지가 왔다 갔다 하면서 점차 그가 마음을 열기 시작했고, 그의 억울한 사연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다.

한국전쟁을 피해 한국으로 피난해 온 중국 난민 가정의 막내로 자란 그는, 시골 마을에서 중국 식당을 운영하는 부모님에게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할머니 손에 컸다.

14세가 되던 해, 가족이 함께 로스앤젤레스 코리아타운에 정착했지다. 그러나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아메리칸 드림이 아니었다. 학교는 그에게 끔찍한 경험만 안겨주었다. 여러번 싸움에 휘말리다 결국 학교 대신 거리를 배회했고, 그러다 그는 갱단으로 흘러들어갔다. 가족으로부터도, 학교로부터도 소외되었던 그가 원한 것은 누군가에게 받아들여진다는 '소속감'이었다.

"사랑받고, 인정받고, 가치 있게 여겨지고, 받아들여지고 싶다는 내 욕망이 옳고 그름에 대한 감각을 가리웠다. 나는 갱단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갱단에 가담한 그 선택의 결과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었다. 어머니가 불교신자였던 그는 불교 예배에 참석했지만, 혼돈만 더 가중되었다. 혼란 속에서 허공이라도 붙잡으려던 절박함 속, 편지를 한 통 받았다. 교도소 사역팀으로부터 온 편지였다.

케니 씨는 편지를 주고 받고, 그들의 방문을 받으며 차차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였다. 신학 학사와 석사까지 마치고 일반 대학과정도 AA 마치고 현재는 UC얼바인에 편입해 사회학과에 재학 중이다. 또한, 자신의 잘못된 선택에 따른 결과와, 복음을 통한 그의 삶의 변화를 나누며 감옥 안에서 많은 사람들을 도왔고, 그들의 삶의 변화를 가져왔다. 더불어 그는 카운슬러 자격증 OMCP(Offender Mentor Certification Program)을 취득하고 교도소 내 재소자들을 위한 카운슬러로도 활동 중이며, 또한 상담을 통해 많은 이들을 교회로 인도하고 있다.



25년간 억울한 감옥살이를 한 한국 태생 화교 케니 리 씨(왼쪽 두번째)의 사연이 알려져, 주안에교회 교도소 사역팀 '주안에호프'가 구명 운동을 벌이고 있다. ©주안에호프

10년이 넘게 그와 대화해 온 주안에호프 교도소 사역팀에서는, 예수를 만난 후 그가 180도 변화되어 헌신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의 억울한 사연과 그리스도의 제자로 변화된 모습에, 주안에호프 교도소 사역팀은 그를 위한 구명운동을 벌이기 시작했다. 이들은 캘리포니아 법대에 이 케이스에 편지를 보내 이 사건을 맡아줄 사람을 찾아보려 했지만, 굉장히 오래되고 복잡한 사건이어서 학생들이 맡기엔 역부족이란 답변만 돌아왔다.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받은 경우, 주지사의 특별사면이 없는 한 출소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주안에호프는 교회를 중심으로 그의 사면을 요청하는 서명운동을 전개해, 청원서를 주지사에게 보낼 계획이다.

주안에호프 팀원인 J 권사는 "전 세계 재소자 수의 1/4이 미국에 있다. 캘리포니아만 10만 명이 넘는다. 현재 캘리포니아에서 재소자 한 명당 관리비로 연간 14만 불이 든다고 한다. 많은 변호사들이, 젊은 애들을 거기 가두지 말고 재활하는 데 그 돈을 써라라고 말한다. 대부분 고등학교 중퇴한 아이들이 많고 GED가 없어서 직업을 갖지 못하니까 교육에 중점을 둬서 AA까지 받게 해주던 것을, 지금은 BA 교육까지 무료로 시켜준다. 얼마전 교도소 졸업식이 있어서 졸업 연설을 듣고 왔다. 어떤 친구들은 자기가 못할 줄 알았는데 자기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느꼈고 뭐가 바른 것이고 틀린 것인지 교육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나를 서포트해준 가족이 고맙다고 했다. 우리 같은 교회에서 영적인 서포트가 정말 필요하다"라며, 출소자들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출소하고 나서 아무 기반이 없이 부모도 없고 가족이 없는 이들도 많다. 나온 친구들이 모인 처치가 있다. 힐사이드처치, 락미니스트리(The Lock Ministry) 한기영 목사님이 계시다. 이런 단체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조명휘 집사는 마지막으로 아시안 커뮤니티가 이 구명운동에 협조해 주길 부탁했다.

"청원서 폼을 만들어서 교회에 보내는 일부터 하려 한다. 많이 협조해 주기를 부탁한다. 주지사에게 보내서 영향력을 미치려면 몇 만 명의 서명은 필요하다."

"우리가 이 프로젝트를 하고 있지만 제가 바라는 것은 이 프로젝트가 끝나기 전에 하나님이 하신 것을 드러내시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다. 우리가 노력은 하지만 하나님은 한 번에 꺼내실 수 있는 분이라 '감옥 문을 빨리 열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는 통로로 사용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다." **주디 한 기자**

케니 리 씨 구명운동 관련 문의: 조명휘 집사(Angie Cho) angiemcho@yahoo.com

"지금은 기도할 때", '국가를 위한 특별기도회' 개최

남가주교계가 국가를 위한 특별기도회를 오는 31일(금) 오전 9시 새생명비전교회(강준민 목사)와 31일(금) 오후 7시 은혜한인교회(한기홍 목사)에서, 각각 LA지역과 OC지역에서 개최한다.

미주성시화운동본부는 "현재 당면한 여러가지 현안들을 바라볼 때 크리스천들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부르짖으려 기도해야겠다는 절박함이 있다. 우리 조국은 대통령의 탄핵과 국민들의 이념 대결로 인해 국제사회의 염려가 증폭되고 있다"며 "미국도 초불확실한 상황에서 47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함으로 국제 외교의 방향이 어떤 식으로 전개될 지 모르는 상황에 놓여있다. 설상가상으로 LA 인근에 대형 산불이 계속되고 있어져 10만 여 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했다. 모든 크리스천들이 모여 국가를 위한 특별기도회를 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특별기도회에서는 대한민국과 한국교회, 미국의 새 대통령과 정부, 미국의 기독교 가치관의 회복, LA화재 극복을 놓고 기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한 기자 간담회에서 강순영 목사는 "산불이 빨리 진화되도록, LA가 다시 새롭게 되도록 기도해야 한다. 20세기 세계를 뒤흔드는 기도운동이 이곳에서 일어났는데 다시 이 도시가 거듭나도록 마음을 모아 기도하자"고 참여를 독려했다.

이번 기도회는 다민족연합기도운동, 미주성시화운동본부, 새생명비전교회, 은혜한인교회가 주관한다.

문의: 213-384-5232(미주성시화운동본부) 토마스 맹 기자



남가주교계가 국가를 위한 특별 기도회를 오는 31일(금) 오전 9시 새생명비전교회와 31일(금) 오후 7시 은혜한인교회에서, 각각 LA지역과 OC지역에서 개최한다. 사진은 14일 남가주 교계 지도자들의 기자회견 모습. ©기독일보



“위대한 삶은 나는 낮추고 그리스도를 높이는 삶”

남가주새누리교회 새해 새벽강단 화재 진화 위해 기도



남가주새누리교회 박성근 목사는 10일 오전 5시 30분 아침예배에서 “위대한 삶의 요건”이라는 주제로 설교하며 성도들에게 삶의 본질과 방향성을 점검할 것을 강조했다. ⓒ기독일보

남가주새누리교회 박성근 목사는 10일 오전 5시 30분 아침예배에서 “위대한 삶의 요건”(요한복음 3:22-36)이라는 주제로 설교하며 성도들에게 삶의 본질과 방향성을 점검할 것을 강조했다.

박 목사는 “세상적인 기준에서 보면 연약하게 보일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를 증거하며 위대한 삶을 살 수 있다”며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위대한 삶이 된다”고 전했다.

박 목사는 요한복음 3장에 나타난 세례 요한의 삶을 통해 위대한 삶의 세 가지 특징을 제시했다. 첫 번째는 ‘위치를 아는 삶’이다. 박 목사는 “모든 삶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위치가 있다. 자신의 위치를 알고 지킬 때 삶이 조화롭고 아름다워진다”고 했다.

“요한은 자신을 신랑이 아닌 들러리로 여겼다. 그는 억지로가 아닌 기쁨으로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며 예수님을 섬겼다. 자기 위치를 지키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위대한 삶이다”고 말했다.

두 번째는 ‘쇠함의 원리’이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라는 요한의 고백을 언급하며, “우리가 낮아질 때 그리스도가 높아진다”고 강조했다. “세상은 성공과 명성을 좇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위대한 삶은 우리가 자신을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높이는 데 있다”고 말했다.

세 번째는 ‘높임의 원리’이다. 박 목사는 요한복음 3:31-36을 근거로 “예수님은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을 높이는 삶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위대한 삶”이라고 전했다.

설교를 마치며 박 목사는 최근 LA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이웃들을 위한 기도도 요청했다.

그는 “현재 약 만 개의 구조물이 전소되고, 10여 명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불이 하루빨리 잡히고 피해자들이 회복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자”고 당부했다. 토마스 맹 기자



사우스 베이 목사회(회장 신태섭 목사)가2025년 새해 첫 기도회를 개최했다.

사우스 베이 목사회 2025년 신년 첫 기도회 개최

사우스 베이 목사회(회장 신태섭 목사)가2025년 새해 첫 기도회를 개최했다.

15일 오전 8시 토렌스조은교회(담임 김우준 목사)에서 신년기도회는 신태섭 목사의 개회 인도로 이황영 목사(남가주 기쁨의교회 담임)가 대표기도했다.

이황영 목사는 ““미국이 정치적 안정을 되찾고 청교도 신앙을 회복하며, 산불 피해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길 바란다”고 기도했다.

김우준 목사는 마태복음 26장 31-35절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라는 제목의 설교를 전했다. 그는, “베드로는 ‘나는 절대 주를 부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지만, 결국 세 번이나 주를 부인하고 했다. 예수님께서 미리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지 못했던 그의 모습에서 우리 자신을 본다”라고 했다. 이어 “목회자로서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면서 정작 자신에게는 적용하지 않는 교만한 모습이 있음을 발견했다. 새해에는 목회자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부서지고 회개하며 순종하자”라고 했다.

이어서 신태섭 목사의 인도로 산불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과 교회, 한국과 미국의 회복과 하나님의 나라 확장, 사우스 지역의 복음화와 지역교회의 부흥,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했다. 김민선 기자

WPC 남가주노회, 신년예배 및 산불 피해 기도회 개최



ⓒWPC 남가주노회

세계예수교장로회 소속 남가주노회(노회장 정요한 목사)는 1월 12일(주일) 오후 4시, 신년예배와 함께 남가주 산불피해 극복을 위한 기도회를 LA세계비젼교회(박기덕 목사 사무)에서 개최했다.

총무 박기덕 목사 사회로 진행된 예배에서 부총무 김영석 목사 대표기도 후 사모 중창단의 ‘저 멀리 뵈는 나의 시온성’ 특별찬양과 설교에 이어, 증경 노회장 박종대 목사와 미주복음주의장로회 증경 총회장 장광춘 목사 축사가 있었다.

노회장 정요한 목사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롬8:26~28)을 제목으로 설교하면서 신년하례 보다 남가주 산불피해 극복을 위한 기도회가 우선이라고 했다.

그는 “요셉이 어린 나이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 가서 갖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고 배신당하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악을 바꿔 선을 이루시는 것처럼 이번 남가주 대형 산불이 오히려 유익하게 될 것을 믿으면서 고통과 아픔 당하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권면 했다. 조셉 리 기자



아버지 밥상교회(홈리스미션)
홈리스 영혼들을 예수님의 품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많은 협력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무디 고 목사 T.(213)364-7289
2551 W. Olympic Blvd. LA, CA 90006
9030 Duncan Rd. Victorville CA 923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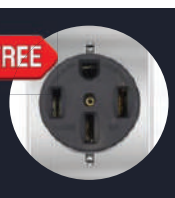
당신도 영적 군사가 될 수 있다
■ 화요일 오후 5:30
■ 금요일 오후 5:30
■ 주일 오후 2:30
회복기도의 집
박태욱 목사 T.(213)500-0480
3054 W 8th ST. STE 204, LA, CA 90006
1. 치유와 축사
2. 대적기도
3. 거룩한 신앙생활
4. 일반적인 영적전쟁
5. 차원높은 영적전쟁
6. 마지막 시간을 위한 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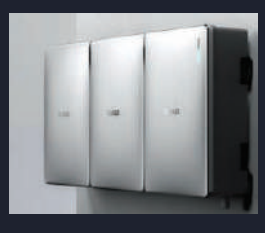
BTS SOLAR DESIGN
태양광, 솔라!!
주택용 30% Tax Credit / 상업용 최대 80% Tax Benefit
*** 전기세 50~90% 절감 ***



상업용 건물, Tax Benefit 60%~80%
텍스 크레딧: 최대 30%
감가상각: 최대 80%적용
(2024년 설치 시)
• 원금 회수기간: 3년~6년
• 전기료 절감: 최대 90%

주택, 커머셜, 교회 등 솔라 설치 가능
Why BTS Solar?
고객님들께 드리는 서비스 약속
최고의 서비스
잘 훈련된 프로페셔널 팀이 최고의 제품을 사용하여 설치해 드립니다.
최고의 워런티
고객님의 시스템은 언제나 안전합니다.
업계 최장 25년 워런티를 보장합니다.
최고의 제안가격
타사대비 25-40%
저렴한 가격으로 제안 드립니다.


FREE
무료 설치 서비스
전기차에 필수인 240V 아울렛을 무료 설치 해 드립니다.


백업용 배터리
정전에도 끄떡없고 절약을 위한 옵션, 고객님들께 원가에 제공합니다.
SCE 지역 필수 / LADWP 선택 옵션

초기부담 없는 $0 다운부터
풀 페이먼트 / 할부 결제 / PPA

www.btssolardesign.com
BTSSolar
LA: 2621 W. Olympic Blvd. #206 Los Angeles, CA 90006
213.500.8000
OC: 6904 Oran Cir. Buena Park, CA 90621
714.702.0151
빠른 상담을 위해 아래와 같이 진행해주십시오.
1. 최신 전기빌을 준비해 주세요.
2. 전기빌 1~4 페이지를 사진 찍으신 후 문자 또는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3. 확인 후 고객님께 별도 안내 드립니다.

2025 설날맞이

센터메디컬그룹 무료나눔 이벤트





무료 떡국 떡 나눔

2025년 1월 27일

오전 10시

9027 Via Vista Dr. **Buena Park**

무료 떡국 식사

2025년 1월 28일

오후 12시

3339 W Temple St. **Los Angeles**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따뜻한 담요와 함께 무료나눔 받아가세요



만 65세 시니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
선착순 행사 | 물건 소진시 **조기 마감**

센터메디컬그룹 (888) 847 -3098

“한국과 미국, 자유의 가치를 붙들어야” 뉴욕 원로 김남수 목사의 통탄

뉴욕 프라미스교회가 새해를 맞아 1월 1일부터 4일까지 특별새벽기도회를 열어 성도들과 함께 기도로 한 해를 시작했다.

이번 특별새벽기도회에서는 허연행 담임목사와 김남수 원로목사가 퀸즈 성전과 뉴저지 성전에서 번갈아 말씀을 전했으며, 4일에는 김남수 목사가 강단에 올라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시편 30:5)를 제목으로 설교를 전하며 자유의 가치를 강조했다. 김 목사는 한국과 미국 사회가 반드시 자유의 본질을 붙들어야 한다고 역설하며 깊은 울림을 전했다.

김 목사는 설교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와 억압으로부터 해방시키셨다”며, 갈라디아서 5장 1절의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참된 자유가 단순히 세상적 해방이 아니라 영혼의 해방임을 강조했다. 그는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얻어진 것이며, 이를 유지하려면 신앙 안에서 책임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사야서 61장 말씀을 언급하며 메시아를 통해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상한 마음을 고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성취됐음을 상기시켰다. 또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달려가라”는 히브리서 12장 1절의 말씀을 인용하며, 그는 죄와 욕심이 우리를 다시 종의 상태로 돌아가게 만드는 위험성을 경고했다.

이어 김 목사는 자유가 단순한 선택이나 편안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귀중한 선물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가족이 북한에서 남한으로 피난했던 경험을 통해 자유의 소중함을 강조했다. 김 목사는 공산 정권의 억압을 피해 할머니가 모든 재산을 팔아 젊은이들에게 나눠주고, 가족을 남쪽으로 피난시켰던 이야기를 회고했다. 그는 “북한에서의 삶은 자유 없이 억압 속에서 숨조차 쉴 수 없는 삶이었다”며, “자유를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았던 세대의 희생과 결단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으로의 이민 경험도 설교에 담겼다. 김 목사는 가족이 미국으로 이주하게 된 과정을 언급하며, 미국 사회가 제공하는 자유로운 환경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설명했다. 이어 그는 “미국은 자유가 보장된 나라지만, 현대 미국 사회는 자유를 방종으로 변질시키고 있다”고 깊은 우려를 표했다.

김 목사는 “학교와 사회에서 남자와 여자의 구분이 희미해지고, 젠더를 선택할 수 있다는 가르침이 젊은 세대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흐름이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것”이며, 결국 사회적, 개인적 파괴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목사는 방종이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고 단언하며, “자유는 책임을 동반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죄와 탐욕에 자유를 허락하면, 이는 다시 종의 상태로 돌아가는 길을 여는 것”이라며, 특히 빚과 욕심으로 인해 스스로 속박을 초래하는 사례들을 예로 들었다. 또 김 목사는 “우리가 얻은 자유를 유지하려면, 날마다 영적 싸움을 지속하고 죄와 세속적 유혹에 저항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국 사회와 현 정치권에 대한 안타까움도 설교에서 드러냈다. 김 목사는 최근 한국 사회가 정치적 분열과 갈등으로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같은 민족끼리 왜 이토록 싸우고 나뉘어야 하는지 통탄했다.

그는 “분열과 갈등의 근본은 세속적 욕망과 탐욕에 있다”고 지적하며, “진정한 자유는 서로를 존중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화합할 때 이루어진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이 다시금 자유의 가치를 붙들고 하나됨을 회복하기를 기도했다.



프라미스교회가 1일부터 4일까지 신년특별새벽기도회를 열었다.

설교를 마치며 김 목사는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라는 시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기쁨과 축복임을 강조했다. 그는 “자유의 가치는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살아갈 세대들에게 지켜져야 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며, “성도들이 날마다 자유를 감사하며 책임 있게 살아가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대원 기자

“김동식 목사 유해와 납북자 · 국군포로 · 억류자 송환 강력 촉구”

故 김동식 목사의 피랍 25주기와 순교 24주기를 기리는 추모 및 납북자 송환 국민촉구식이 지난 13일 오전 10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조정훈 의원실, 선민네트워크, 김동식목사유해송환운동본부, 6.25납북피해자대책위원회가 공동 주최하고, 여러 북한인권 단체들이 후원했다.

1부 추모예배는 최종표 목사(핑크드림)의 사회로, 김영일 목사(북한순교자기념관 관장)의 설교, 주기도문 순으로 진행됐으며, 2부 납북자송환 국민촉구식은 강신성 대표(두번째출발 대표)의 사회로, 조정훈 의원(국민의힘)·김규호 목사(김동식목사기념사업회 대표)의 인사말, 도희윤 대표(피랍탈북인권연대)의 추모사, 참가단체 대표의 연대발언, 강사근 장로(대한민국미래연합 대표)의 성명서 낭독, 구호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김동식 목사 유해와 납북자, 국군포로, 억류자들의 송환을 강력 촉구한다’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성명에서는 “故 김동식 목사는 2000년 1월 탈북자를 돕다가 북한이 보낸 공작원들에 의해 중국 연길에서 납치되었다”며 “또한 2001년 납치 이듬해 고문과 영양실조로 북한 감옥에서 사망한 것으로 2007년 봄 중국내 S선교사를 통해 가족들에게 소식이 전달되었다”고 했다.

이어 “장애인이었던 김 목사는 중국에서 장애인들을 돕는 일을 하던 중 탈북자들을 만나게 되면서 그들의 고통과 아픔이 너무나도 안타까워 그들을 돌보며 한국으로 데려오는 일을 했었다”며 “그러던 지난 2000년 1월 16일 연길교회 인근 식당에서 식사를 마치고 나오다가 북한공작원들에 의해 대기하고 있던 차에 납치당했다. 김 목사를 납치한 북한당국은 김 목사에게 온갖 위협과 회유로 김일성주체사상으로 전향하고 탈북자를 도운 과거를 회개하도록 강요했다고 한다”고 했다.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상 전향을 거부한 김 목사는 음식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해, 80kg이던 몸무게가 35kg으로 줄고 고문 후유증에 시달리다 영양실조로 이듬해인 2001년 감옥에서 순교했으며 북한 평양근교 상원리 소재 조선인민군 91훈련소 위수구역 내에 안장됐다고 한다”고 했다.이들은 “납치 범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명분을 찾을 수 없으며, 공소 시효와 상관없이 처벌되어져야 한다”며 “특히 순수한 마음으로 북한 동포에게 도움을 주고자 했던 선교사를 납치하여 죽음에 이르게 한 북한당국의 야만적인 행위는 도저히 용납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동안 북한은 6.25 전쟁 시기 약 8만 명의 대한민국 국민을 납치했고 전 후에도 전 세계를 대상으로 외국인을 납치하여 스파이 양성 교육에 투입하며 1969년 KAL기를 공중납치를 비롯하여 수백 명에 이르는 어부들과 선교사들을 납치하고 살인하는 만행을 저질러 왔다”며 “또한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장만석 씨 등 6명의 유인납치와 강제억류의 야만스러운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책무를 다하지 못한 체 25년이 되도록 김동식 목사의 생사확인 조차 이루지 못하고 있고 6.25 납북자를 비롯한 모든 납북자, 국군포로, 억류자들의 송환과 유해송환에 대해서도 진척을 보지 못하고 납북자 가족들의 피맺힌 울분에 대해서도 제대로 위로하지 못하는 잘못을 저질러왔다”고 했다.

아울러 “도대체 언제까지 납북자 문제를 이대로 방치할 것이며 국군포로들과 억류자들의 문제를 외면할 것인가”라며 “이에 우리는 김동식 목사를 비롯한 모든 납북자들의 생사확인과 유해송환을 간절히 소망한다”고 했다.

장요한 기자

기독일보 Pay to the Order of Christianity Daily

편집고문 : 장재효, 박기호, 김중언, 고승희, 민종기, 정우성
발 행 인 : 이인규 고문변호사 : 정찬용
지 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애틀랜타, 시애틀, 텍사스
대표전화 : T.(213) 739 - 0403 / E-mail : chdailyla@gmail.com
주 소 : 3055 Wilshire Blvd. #480, Los Angeles, CA 90010





서울메디칼그룹이
No.1 인 이유는
늘 따듯한 마음으로 가족을 지켜온
오늘의 당신 덕분입니다

더 많은 사랑으로
더 건강한 시간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SMG 서울 메디칼 그룹
SEOUL MEDICAL GROUP

문석호 목사, 사도행전 주해집 〈그 도(道)의 사람들〉 출판 기념 예배

1월 19일 오후 4시
LA 뉴크리에이션교회서

총신대와 골든 콘웰신학교에서 후진을 양성하고 뉴욕효신장로교회에서 15년 목회를 하며 이민자를 돌보며 초대교회의 공동체성을 강조했던 문석호 목사가 최근 〈사도행전 주해 및 교훈집〉을 펴냈다.

1,200 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주해집을 펴낼 수 있었던 것은 목회의 자리를 떠나 조지아 주 조용하고 평화스런 마을에 자리를 잡으면서 집을 도서관이자 작은 수도원으로 생각하며 생활을 시작한 덕분이다.

그는 인구 만 여 명도 안되는 시골 도시 베들레헴 외곽 Noah's Landing에 자리잡으면서, 곧바로 주해 작업에 착수했으며, 2년 간 작업의 결실로 〈사도행전 주해 및 교훈집〉을 출간하게 되었다.

첫 작업에서 주헤집은 1,800 페이지에 달했으나, 저자는 내용을 축소해 1,200페이지로 줄여 단권으로 출간했다.

〈그 도(道)의 사람들〉이라는 부제가 붙은 이번 주해집 출판을 기념해 문 목사는 최근 한국을 방문해 1월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출판 감사예배 및 기념 세미나를 개최했다.

한편, 미국 서부에서는 19일(주일) 오후 4시에 뉴크리에이션교회(담임 김관중 목사, 23814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에서 출판감사예배를 드린다.

이어 △미동부 워싱턴의 훼어팩스한인교회/WMCGW신학교(총장:양광호박사)에서는 1월 26일(주일) 오후 4시30분에 드려지고 △미동부 뉴욕 베데스다교회에서 28일(화) 오전 10시30분에 일정을 잡았다. 조지아주 아틀란타에서는 4-5월경 봄 출판감사예배를 드릴 예정이다.

문석호 목사는 신학자이자 목회자로, 자연과 인간의 내면을 탐구하며 신앙과 철학, 과학적 사고를 융합하는 연구와 실천적 사역에 헌신해 왔다. 그는 현대 문명이 잃어버린 공동체성을 회복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책임감 있게 살아갈 길을 모색하는 데 평생을 바쳐 왔다.



문석호 목사의 저서 사도행전 주해집〈그 도(道)의 사람들〉출판 감사예배 및 기념 세미나가 14일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진행됐다. ⓒ기독일보

1952년 경기도 화성의 자연 속에서 태어나 자란 그는 총신대를 시작으로 연세대, 오하이오주립대, 웨스트민스터신학교, 풀러신학대학원 등에서 철학과 신학을 두루 연구하며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한국과 미국, 남아공 등지에서 신학과 조직신학, 과학철학 등을 가르치고 목회 현장에서 활동하며 선교와 영성 운동에 힘써 왔다.

특히 뉴욕 이민교회에서의 사역을 바탕으로 복음의 실천적 측면을 강조했다. 현재는 미국 조지아주에서 자연과 함께하는 삶을 살며 연구와 집필에 전념하며 저술과 강연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송경호 기자

베이직교회 1주년, "기본에 충실하면 한강의 기적 이뤄진다"

LA베이직교회(이선기 목사)가 창립 1주년 기념 감사예배를 12일 오후 12시에 거행했다.

신병옥 목사(서부지역 감리사)는 기독교의 본질과 사명에 대해 메시지를 전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른 순종이 교회의 미래를 변화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로마서 5장 8절을 언급하며,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주께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며 "베이직 교회는 이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베이직에 충실한 교회, 사랑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한다"고 말했다.

신 목사는 마태복음의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선교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한국이 세계 선교의 중심 국가로서 맡은 역할을 강조했다.

"한국은 선교에 열심히 임하는 나라며, 오픈 마인드를 가진 나라다"라며 자신이 사역했던 한국의 한 교회에서 2005년부터 시작한 비전 선교 운동에 대해 이야기하며, 2050년까지 50만 선교사를 파송하는 '미션 무브먼트'의 목표를 언급했다. 신 목사는 당시의 어려움을 회상하며, "작은 교회에서 이런 목표를 세운다는 것이 황당하게 느껴졌다. 그러나 준비하던 중 성령께서 제게 '내가 급해서 이런다'는 음성을 들려주셨다"고 전했다.

그는 "작은 선교 운동으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3,000개 교회와 5,000명의 목회자가 함께하고 있으며, 10만 명 이상의 성도들이 참여하고 있다"며, 이 결과로 하나님이 이루신 놀라운 기적을 나눴다.

베이직을 따르는 교회

설교의 마지막에서 신 목사는 교회가 기독교의 본질, 곧 베이직에 충실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그는 "우리 안에 베이직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기독교 역사에 한강의 기적 같은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예배 중에 축사 영상이 있었으며 파송 찬송에 이어 김낙인 목사의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예배 후에 성도들은 지난 1년 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점심 친교를 나눴다.

LA베이직교회는 LA연합감리교회와 윌셔연합감리교회 소속이었던 한인 성도들이 연합감리교단의 반성경적 정책, 동성애 합법화 흐름에 반대하여 개척한 교회이다.

주소: 1304 S. Cochran Ave. LA, CA 90019, **웹사이트**: labasics.org

토마스 맹 기자


LA베이직교회가 창립 1주년 기념 감사예배를 12일 오후 12시에 거행했다. ⓒ기독일보

"입틀막, 폰틀막… 국민 기본권 침해 행위 멈춰야"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임다윗 목사)가 1월 15일 발표한 성명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국민소통위원회 산하 허위조작감시단' 활동을 강하게 비판하며,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교회언론회는 성명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 대표로서 국민소통을 돕기보다는, 유튜브와 카카오톡을 탄압하며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려 한다"며, "이는 헌법에 보장된 양심과 표현의 자유를 짓밟는 행위로, 전 국민을 통제하려는 독재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특정 우파 유튜브 채널들을 고발하며, 허위 정보를 유통한 개인과 책임자에게도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한국교회언론회는 "그들의 주장은 자신들에게 불리한 여론을 억누르고, 국민에게 공포심을 심어주기 위한 대국민 선전포고와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성명은 민주당이 유튜브와 카카오톡에서 퍼져나가는 내용을 가짜 뉴스로 규정하고 이를 규제하려는 시도가 "결국 진영 논리에 기반한 불공정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어 "언론과 커뮤니티를 장악하려는 시도는 국민을 무시하고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그런 행위로 성공한 나라는 없다"고 강조했다. 한국교회언론회는 과거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교회를 핍박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당시에도 "허위 정보를 이용해 교회를 비난하고 예배를 제한하려 했던 전례가 있다"고 비판했다. 성명은 마지막으로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자세를 버리고, 국민이 주인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정치적 힘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빼앗으려는 시도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한국교회언론회 대표 임다윗 목사 ⓒ한국교회언론회

박용국 기자



LA 화재로 건물 잃었지만… “건물 아닌, 우리가 교회”



▲이번 화재로 전소된 알타디나 교회(Altadena church) ⓒumnews.org

1월 7일 팰리세이즈와 이튼에서 최초 화재가 발생한 이래 최소 7개의 산불이 미국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전역으로 불길이 번져 나갔다. 서울 면적의 4분의 1인 160㎢가 소실됐으며 1만2000채가 넘는 건물이 잿더미로 내려앉아 캘리포니아 일대에 충격을 안긴 가운데, 이 가운데 개신교 교회, 가톨릭 교구, 유대인 회당 역시 불길에 휩싸였다.

LA타임즈는 이튼 화재로 전소된 알타디나 커뮤니티 교회 소식을 전했다. LA타임즈에 따르면, 이 교회는 화재로 교회 건물이 불타버렸으나 교인들과 함께 이웃 교회인 몬테벨로 플리머스 교회에서 합동예배를 드렸고, “교회는 건물이 아닌, 우리가 교회”임을 재확인했다.

이 교회 담임인 텔스트룀 목사의 남편인 칼 휘든은 “우리 교회는 언제나 모이고, 언제나 함께 있을 것이다”라며, 불길조차도 그 하나됨을 멈추지 못하게 할 것이라 말했다. 이날 설교를 전한, 연합그리스도교회 남부 캘리포니아 네바다 연회의 회장 레이첼 프라이어 목사는 교회의 가치는 교회 건물이 아닌, 사람들에 의해 공유될 것이라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연합감리교는 UMC 뉴스를 통해 2개 이상의 연합감리교회 건물이 파괴되었다고 알렸다.

UMC 뉴스에 따르면, 1월 8일, 알타데나 연합감리교회, 퍼시픽 팔리세이드의 커뮤니티 연합감리교회 건물이 화마에 휩싸였고 다른 연합감리교회 5곳도 대피 명령을 받았다. 또, 두아르테 풋힐스 교회(Church of the Foothills in Duarte) 및 다른 교회 건물들도 강한 바람에 피해를 입었다. 연합감리교에서는, 재난에 대처하는 모든 이들, 특히 구조대원들을 위해 기도를 요청했다. 또한 캘리포니아-태평양 연회는 화재 복구 기금에 기부할 수 있도록 포털을 마련했으며, 이외에도 연합감리교회 구호위원회(UMCOR)를 통해 기부할 수 있다고 전했다.

연회를 대표해 알타데나의 피해 상황을 조사한 길리엄 지구 감독은 이번 화재를 말로 표현하기 힘들다며, “이 교회는 젊은 가족들과 청소년들로 가득했던 곳이었다. 그게 제 마음을 아프게 한다”라면서도,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이 비극적인 일을 통해 좋은 일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AP뉴스는, 이번 화재로 알타데나에 있는 세인트마크성공회 교회(Saint Mark’s Episcopal Church), 퍼시픽 팔리세이즈의 코프스 크리스티 가톨릭 교회(Corpus Christi Catholic Church), 퍼시픽 팰리세이즈 장로교회(Pacific Palisades Presbyterian Church) 등도 피해를 입었다고 보도했다.

세인트마크교회 캐리 패터슨 그린던(Carri Patterson Grindon) 목사는 페이스북에, 교회 건물이 전소되었다는 소식을 전하며, “이 파괴적인 손실에 직면해, 우리는 서로가 필요할 것이다. 저는 여러분을 위해 여기 있으며,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든 함께 뭉치고 서로를 사랑하고 지원할 것이다. 직원 및 다른 사람들과 협력하여 상호 지원 네트워크를 만들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연결해 드리겠다”고 밝혔다.

또한 퍼시픽 팰리세이즈 장로교회도 파괴되었다. 이 교회는 Facebook 페이지에 화재 전에는 온전한 교회였지만 화재 후에는 폐허가 된 교회의 사진을 게시했다. 피해 지역의 목회자들과 사역자들은 집을 잃은 성도들에 대해 우려를 표하면서도 그들의 신앙에는 변함이 없다고 고백했다.

주디 한 기자

교황 “순결한 男 동성애자, 신학교 입학 가능”



ⓒpixabay

주교회 웹사이트에 새 지침 공개

교황청이 성관계를 멀리하는 순결한 동성애자 남성이라면 가톨릭신학교에 입학할 수 있다는 새 지침을 내려 충격을 주고 있다.

로이터통신 등은 10일(이하 현지시각)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새로운 지침이 이탈리아 주교회 웹사이트에 게시됐다며 관련 소식을 전했다.

이에 따르면, 신학교 책임자는 사제 후보자의 성적 취향을 인간 성격의 한 측면으로만 고려해야 한다. 다만 동성애적 성향을 과시하는 남성일 경우 사제 교육에서 배제해야 한다.

즉 “성소수자들을 존중하지만, 동성애적 성향을 드러내는, 이른바 확고한 ‘동성애 문화’ 지지자들은 신학교와 성직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교황층은 그동안 동성애자 남성의 사제직 입문을 명시적으로 금지하지는 않았으나, 2016년 발표된 지침에는 “신학교가 ‘동성애 성향이 깊은’ 남성의 입학을 허용할 수 없다”는 내용이 있었다.

역대 교황 중 가장 진보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프란치스코는 2013년 취임 이후 성소수자(LGBTQ)를 포용하는 태도를 취했고, 동성 커플에 대한 ‘축복’을 공식 승인하기도 했다.

바티칸에 승인된 새 지침은 시범운영 기간인 3년 동안 유효하다. 그러나 뉴욕타임스(NYT)는 “동성애를 금지하는 나라들의 주교회에서는 이번 지침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강혜진 기자

문서선교를
후원하는 교회
Christianity Daily

LA 지역

주일예배 오전 11:00
어린이예배 주일 오후 2:00
장년기초성경공부 주일 오후 2:00
영혼의 샘 내적치유 영성집회
- 월~금 오후 7:30
- 토 오후 3:00
김성식 담임목사
LA백송교회
백합화처럼 순결하고 소나무처럼 늘 푸르른 영혼으로 소생시키는 교회
6031 Linden Ave, Long Beach, CA 90805
T. (562)606-2345, (424)445-8070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차세대예배 오전 9:15)
3부예배(차세대예배) 오전 11:30
대학청년부/EM 오후 2:00
새벽예배 (월)온라인 Only 오전 6시
(화~토) - 오전 6:00
수요중보기도모임 온라인 오후 8시
김기섭 담임목사
www.LAsarang.com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깨우고,이민2세를책임지며,이민가정을치료하며,선교명령을순종하는교회
26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Olympic과 Elden 코너)
T. (213)386-2233

주일예배 오전 10:50
금요말씀과 삶 공부 오후 7:00
아침말씀예배(월~토) 오후 9:00
써니김 담임목사
LA씨티교회
일터교회를 세우는 예수 공동체
741 S. Crenshaw Blvd., LA, CA 90005
T. (323) 833-9090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0:50
청소년예배 오전 10:50
어린이예배 오전 10:50
새벽예배 오전 6:00 (화-금)
토요비젼새벽예배 오전 6:30
한천영 담임목사
갈릴리선교교회
가족같은 교회, 가족 이상의 가치
3721 Marmion Way., Los Angeles, CA 90065
T. (323) 735-6412 / gmcchurchc.com

주일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토) 오전 6:30
엘리야 김 담임목사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아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439 S Western. #100, LA, CA 90020
T. (213) 272-6031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45
새벽예배 오전 5:30 (월-토)
수/금요예배 오후 7:30
진유철 담임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세운 뜻을 이루어가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주일예배 오전 7:30, 9:00, 11:00
교육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9:30
청년부예배 오후 1:30
박은성 담임목사
나성영락교회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 (323) 227-1400 web@youngnak.com

주일예배 오전 10:30
수요예배 오후 8:00
주일학교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토요일) 오전 6:00
김성원 담임목사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령 선교로 세움 받아 함께 달려가는 예수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674-3016, cell. (562)417-1800
www.newhopechurchsc.org

주일1부예배 오전 7:30 본당
주일2부예배 오전 9:30 본당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본당
주일4부예배 오후 1:31 비전센터
OMC 주일학교 오전 11:30 교육관 1층
OMC 중고등부 오전 11:30 교육관 4층
OMC소망부 오전 11:30 교육관 427호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6:00 본당
주중새벽기도회 온라인(Online)
수요중보기도회 오전 10:00 본당
김지훈 담임목사
동양선교교회
424 N.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4
T.(323)466-1234 Email: omcoffice1@gmail.com

주일예배 1부 오전 8:15
주일예배 2부 오전 9:50 금요기도회 오후 7:30
주일예배 3부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6:00
주일예배 4부 오후 2:00 EM Worship Sunday 2:00
김일형 담임목사
새생명오아시스교회
1041 S. Oxford Ave. Los Angeles, CA 90006
T. (323)730-7000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강지원 담임목사
새 한우리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치유와 회복이 있으며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
1818 S Western Ave #403., LA, CA90006
T. (323) 702-6709

주일예배 오전11시
새벽기도회 오전 6시(금, 토)
김재연 담임목사
영생교회
1829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T. (323)732-7356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11:00
금요저녁기도회 오후8: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이수호 담임목사
올림픽장로교회
3055 Wilshire Blvd. #220., LA, CA 90010
T. (213)387-1700 olympicch@gmail.com

주일예배: 아침 10시반
수요예배: 저녁 7시
매일 오전기도회: 9-11시
매일 저녁기도회: 8-10시
라디오 방송설교
라디오서울 AM 1560
주일 아침 6시
서사라 담임목사
주님의 사랑 교회
세계선교와 함께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로 단장하는 교회
216 E. 31st St. Los Angeles CA 90011
T. (213) 574-9400
lordslovechristianchurch@yahoo.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30
3부예배 오후 1:00
라티노 오후 5:00
GCEM 오후 1:00
수요/금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 (월~토)
신승훈 담임목사
주님의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주일예배 1부 오전 8: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초등부 주일 오전 11:00
중고등부 주일 오전 11:00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6:00 본당/온라인
김창섭 담임목사
세계선교교회
927 S. Menlo Ave. Los Angeles, CA 90006
Tel. (213) 388-1927 www.wmcla.com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유아, 유년부 오전 11:00
중고등부 오전10:50
한국학교 오전 9:3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평일 오전 5:30
토요새벽 오전 6:00
고광선 담임목사
한길교회
4050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10
T.(323)735-0200 churchtheway@gmail.com

주일예배 오전 10:30
중고등부 성경공부 주일 오전 9:30
대학청년부 성경공부 주일 오전 9:30
한현종 담임목사
크렌셔장로교회
1060 Crenshaw Blvd, Los Angeles, CA 90019
T. (213) 407-1600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한글학교주일 오전10:00
유초등부 오전11:00
중고등부 오전11:00
E.M(대.청) 오후 1:3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 (월-금)
오전 6:30 (토)
곽부환 담임목사
한마음제자교회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213)321-4433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주일 오전 10:00 하톤교회
4500 W. El Segundo Hawthorne, CA 90250
Tel. 310-706-7721
주일 오후 1:00 가든그로브한인교회
13411 S. Euclid St. Garden Grove, CA 92843
주일 오후 7:00 웨스턴교회
439 S. Western Ave, LA, CA 90020
진건호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40
3부예배 오전 11:30
교육부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매일) 오전 5:30
국윤권 담임목사
충현선교교회
불러서(Calling), 고치고(Healing), 기르며(Maturing), 맞선다(Confronti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818) 549-9191 / F.(818)549-9199 / choonghyun.org

사우스베이 지역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30
3부 EWS 예배 오후 2:00
유중고등부 예배 오전 8:40
주일아침 성경공부 10:4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이호민 담임목사
가디나선교교회
1044 W.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310)532-0191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유아부,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45(화~금) / 6:20(토)
이황영 담임목사
남가주기쁨의교회
25500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326-0300, http://rpcsc.com

문서선교를
후원하는 교회
Christianity Daily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수요기도회 오후 9:00
새벽기도회(토) 오전 6:00
윤성현 담임목사
늘푸른동산교회
17116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562) 774-7224 / evergreenhill.org

1부예배 오전 8:30
2부예배 오전11:00
EM 1부 9:30/ 2부 11:00
중/고예배 오전 11:0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6:00(월-토)
김정훈 담임목사
대흥장로교회
파송가라,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출3:9~10)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1부 예배 오전 8:00
2부 예배 오전 10:45
EM성인예배 오전 9:30
금요 예배 금요일 저녁 7:30
새벽 예배 매일 오전 6:00
김경환 담임목사
은혜로교회
새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라
431 Madrid Ave. Torrance, CA 90501
Tel. 310)787-7766 / www.gwctorrance.com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2: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 (화-토)
이종용 담임목사
코너스톤교회
이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310) 530-4040 / F.(310) 530-8400 / cornerstonetv.com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45
EM 예배 오전 9:45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KM청년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월-토) 오후 6:00
김우준 담임목사
토렌스 조은교회
주님앞에 드려짐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는 공동체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370-5500 / www.torrancegcc.org

주일1부 오전 7:45
주일2부 오전 9:45
주일3부 오전 11:30
EM예배 1부 오전 9:45/2부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월~토 오전 6:00
고창현 담임목사
토렌스제일장로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1880-1900 Crenshaw Blvd, Torrance, Ca 90501
T. (310) 618- 2222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GRC(EM)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0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토요일) 오전 6:00
방상용 담임목사
세리토스선교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 Step Up 하고 Step Out 하는 교회 (행 6:7)
12413 E. 195 th St. Cerritos, CA 90703
T. (562)402-2919 www.cmchome.org

주일1부예배 8:00am
주일2부예배 9:30am
주일3부예배 11:15am
주일교육부예배 11:00am
주일EM예배 11:00am
수요찬양집회 7:30pm
토요새벽예배 6:00am
주중새벽예배(온라인) 5:30am
정유성 담임목사
오렌지한인교회
643 W. Malvern Avenue, Fullerton, CA. 92832
T. (714) 871-8320 / www.okcrc.org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
한어대학청년예배 오후 2:00
금요찬양 오후 7:30
장애인예배 오전 11:30
영어장년부 오전 9:30, 11:30
새벽기도회 5:30(월-금)/6:00(토)
구봉주 담임목사
감사한인교회
예수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모레노밸리 예배시간: 매주 일 오후 3시
LA 밸카든구국재단 :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
이우호 담임목사
CRPC 모레노밸리한인교회/LA구국재단
24725 Alessandro Blvd. Moreno Valley CA 92553
T. (954) 200-0875

1부 예배 오전 8:00
2부 예배 오전 9:45
3부 예배 오전 11:30
KM청년예배 오후 2:00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수요예배 오후 7: 30
Youth/ College 주일오전 11:00
지영환 담임목사
다우니제일 교회
주를 기쁘시게하는 교회 (고후 5:9)
7948 Quill Dr. Downey, CA 90242
T. (562) 861-1004 www.downeyfirstchurch.org

주일예배 오전 11:30
찬양예배 오전 11:00(수)
중보기도 오전 9:30(목)
제자성서 오전 9:30(금)
새벽기도 오전 6:00(화~토)
림학춘 담임목사
라구나힐스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은혜와 열정의 GnP 300
24442 Moulton Parkway. Laguna Woods, CA 92637
T. (949)380-7777 / www.lagunaumc.org

1부예배 오전 7:00
2부예배 오전 9:00
3부예배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성인 영어 예배 오전 9:00, 오전 11:00
일본어 예배 오후 1:15
주일학교 오전 9:00, 오전 11:00
김한요 담임목사
베델교회
역동적 복음, 능동적 선교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2부 오전 9:15
3부 오전 11:30
4부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00
중고등부 오전 11:15
한어부 오후 1:00
KM대학청년부 오후 2:30
박신웅 담당목사
얼바인온누리교회
다음세대를 세우고 복음으로 다가서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949)261-9100 / vision.onnuri.org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15
3부찬양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청년부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월-금)
남성수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워 초대교회 역사 이뤄가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rcoc.com

1부예배 오전 07:20
2부예배 오전 09:10
3부예배 오후 11:20
4부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 평일 오전 05:30
토요일 오전 06:00
금요성령예배 오후 0730
한기홍 담임목사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상급받는교회 세계선교를 마무리짓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주일 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박 훈 담임목사
함께걷는교회
하나님, 성도, 이웃과 함께 걷는 교회
6102 Stanton Ave., Buena Park, CA 90621
T.(213)598-9130 breadhoon@hanmail.net

주일예배 1부 오전 7:45
주일예배 2부 오전 9:30
주일예배 3부 오전11:30
(청장년/교육부서)
수요여성예배 오전 10:00
금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평일) 새벽 5:30
(토/주일) 새벽 6:00
김종규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티 제일장로교회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714) 899-9191 / oc1church.com

1부예배 오전 8:20
2부예배 오전 11:00
청년예배 EM 오후 1:30
수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주혁로 담임목사
주님의빛교회
네가 나를 사랑하는냐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0
T. (714)252-9191 / www. lordlight.org

1부예배(EM) 주일 9:00am
2부예배(KM) 주일11:00am
교육부예배 주일 11:00am
(유아유치부,유초등부,중고등부)
금요찬양예배 8:00pm
(매월 두번째 금)
새벽예배 화~금 5:30am
토 6:00am
안창훈 담임목사
늘푸른선교교회
복음 중심의 선교적 제자공동체
2216 E. South St., Anaheim, CA 92806
T. (714)808-9191 / www.missionways.org
mcc.office.email@gmail.com

LA 동부 지역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40
3부예배 오전 11:40
EM(Holy Wave) 오전 9:4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40
대학청년부 오후 2:00
새벽예배 오전 5:20 (월-금)
금요영성집회 저녁 7:30(금)
우영화 담임목사
LA동부사랑의교회
복음으로 사는 사람 (창 12:2-3)
5540 Schaefer Ave. Chino, CA 91710
T. (909)590-3722 www.eastsarang.org

1부예배 오전 7:45
2부예배 오전 9:45
3부예배 오전 11:45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6:00
고승희 담임목사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11:20
영어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화~금) 오전 5:30
(토) 오전 6:00
구경모 담임목사
한빛장로교회
11608 Valley Blvd., El Monte, CA 91732
T. (626)444-0521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
4부 청년예배 오후 1:45
EM 1부예배 오전 9:30
EM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말씀강해 오후7:30
새벽예배 오전(월-금) 5:30 (토) 오전 6:00
안 환 담임목사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F. (909) 622-1480 / inlandchurch.org

김장환 목사 "故 카터, 성경대로 살려 노력한 참된 신앙인"



김장환 목사(앞줄 오른쪽에서 네 번째)가 참석한 가운데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 장례식이 진행되고 있다. ⓒ극동방송

극동방송 이사장 김장환 목사가 대한민국 대표 자격으로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의 장례식에 참석했다.

미국의 제39대 대통령이자 최장수 대통령인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29일, 100세의 나이로 별세했다. 이에 따라 1월 9일(현지 시간) 워싱턴 D.C.의 워싱턴 국립 대성당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을 비롯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 버락 오바마·조지 W. 부시·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장례식이 거행됐다.

이번 장례식은 유가족의 뜻에 따라 카터 전 대통령과 특별한 인연이 있는 인사들만 초청됐다. 특히 카터 전 대통령의 손자인 제이슨 카터는 김장환 목사에게 여러 차례 참석을 요청했으며, 대한민국 외교부 또한 두 사람 간의 깊은 관계를 고려해 김 목사의 방미를 공식 요청했다. 이에 김 목사는 신중히 고심한 끝에 한국 대표로 장례식에 참석했다고 한다.

김장환 목사와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은 약 50년에 걸친 깊은 우정을 쌓아온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두 사람의 첫 만남은 카터 전 대통령이 조지아주 주지사로 재임하던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후 카터가 대통령으로 재임하며 한국을 방한했을 때, 김 목사는 위태로웠던 한미 관계를 개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특히 주한미군 철수 위기를 막는 데 기여한 인물로 평가받는다.

또한 김 목사는 당시 카터 대통령에게 박정희 전 대통령에게 복음을 전해달라고 요청했으며, 카터 대통령은 이를 직접 실행에 옮겨 김 목사와의 약속을 지켰다고도 한다. 두 사람은 대통령직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교류하며 카터센터 설립과 같은 주요 프로젝트에서 협력하는 등 돈독한 관계를 이어왔다.

장례식 추모사에서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의 손자 조슈아 카터는 "할아버지는 해군사관학교 시절부터 주일학교 교사로 헌신했다. 2차 세계대전부터 코로나19 팬데믹까지 주일마다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 어느 곳에 있든지 비행기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다"며 그의 신앙심을 기렸다. 조 바이든 대통령 역시 추모사에서 "지미 카터는 공의를 행하고 자비를 사랑하며 겸손히 살아온 인물이다. 이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안식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장환 목사도 카터 전 대통령을 회상하며 "그는 진실되고 솔직한 사람으로, 매 순간 성경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참된 신앙인이었다"고 애도의 뜻을 표했다.

한편, 김장환 목사는 한국 시간으로 1월 11일 귀국할 예정이다.

김진영 기자

美 역대 최악 산불에… 기독교 단체들, 피해자 지원 나서



화재로 인해 폐허가 된 도시의 모습. ⓒ유튜브 영상 캡쳐/WSJ

역대 최악으로 평가되는 미국 로스앤젤레스(LA) 대형 산불 피해자들을 위해, 기독교 구호단체들이 지원에 나섰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베이커즈필드에 본부를 둔 기독교 단체 '시티서브'(CityServe)와 버지니아주 포레스트에 위치한 '월드헬프'(World Help)는 지역교회 및 사회 파트너와 협력해 LA 카운티에 긴급 구호품을 배포하고 있다.

강풍과 건조한 날씨 속에 산불이 지속되면서 LA 전역에 광범위한 파괴를 초래했다. 팰리세이즈, 이튼, 허스트, 리디아, 선셋 화재를 포함해 이번 화재로 최소 10명이 목숨을 잃었고, 9천 채 이상의 건물이 소실됐으며, 18만 명 이상이 이재민이 됐다. 시티서브는 피해를 입은 가정에 물, 음식, 위생용품, 의류 및 기타 필수품이 실린 구호 트럭을 보냈다.

시티서브 네트워크의 전무이사 칼 하르게스탐은 성명을 통해 "우리는 산불 규모와 희생된 생명에 마음이 매우 아프다"며 "우리의 기도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가족과 지역사회, 그리고 삶이 뒤바뀐 사람들과 함께한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이 중요한 순간에 그들이 치유될 수 있도록 돕는 데 필요한 자원뿐만 아니라 연민과 희망을 제공하기 위해 전념하고 있다"며 "교회 및 커뮤니티 파트너 네트워크를 활용해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지역에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있다"고 전했다.

기독교 인도주의 단체인 월드헬프도 화재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단체는 LA카운티의 이재민들에게 임시 대피소, 식료품, 위생용품, 유아용품 등 긴급 필수품을 전달했다.

노엘 브루어 예이츠 월드헬프 회장은 "지역 파트너들과 협력해 가장 취약한 가정과 지역사회에 구호품이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많은 사람들이 이번 화재로 모든 것을 잃었다. 그러나 아직 끝나지 않았다. 화재가 진압되더라도 복구 작업은 이제 막 시작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집과 생계를 잃은 가족과 지역사회가 치유하고 재건하는 과정을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의 역할을 다하고자 한다"면서 "우리의 목표는 단기 구호 활동과 장기 복구 과정을 통해 생존자들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혜진 기자

“북한군, 단순 ‘총알받이’ 아니다”

우크라이나, 북한 파병군 전장에서 고도로 숙련된 병사로 평가



우크라이나 특수작전군(SOF)이 지난해 12월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사진으로, 러시아 쿠르스크 전투에서 북한군으로 추정되는 한 병사가 무인기(드론) 공격을 받은 뒤 쓰러져 있다. ⓒSNS

우크라이나 쿠르스크 지역에서 교전 중인 북한군이 단순히 ‘총알받이’로 전쟁에 투입된 것이 아니라, 고도로 숙련되고 의욕 넘치는 보병으로 평가받고 있다는 우크라이나 군인들의 증언이 나왔다.

미국 매체 폴리티코는 13일(현지 시간) 우크라이나군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북한군이 체력, 심리적 회복력, 전술적 숙련도에서 뛰어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야로슬라우 체푸르니 우크라이나군 대변인은 인터뷰에서 “북한군은 젊고 의욕적이며 신체적으로 뛰어나고, 소형 무기 사용에도 매우 숙련되어 있다”며 “이들은 훌륭한 보병이 되기 위한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제80공수돌격여단 소속 유리 본다르도 북한군의 높은 훈련 수준과 안정적인 사기를 언급했다. 그는 “북한군은 생포될 위기에 처하면 수류탄으로 자폭하거나 잔류 병력이 전사자의 시신에 불을 붙이는 극단적인 방식을 취한다”고 전했다.

특히, 북한군의 소형 무기 사용 능력과 드론 대응 역량이 우수하다는 점도 지적됐다. 본다르는 “북한군은 드론을 격추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며, 심리적 회복력이 뛰어나다”고 평가하며, 2022년 러시아의 바그너 그룹 용병과 비교해 북한군이 훨씬 강력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쿠르스크 지역에는 약 1만1000명의 북한군이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국가정보원(국정원)은 지금까지 북한군 약 300명이 사망하고 2700명이 부상하는 등 총 3000명 이상의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북한군이 현대전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고 러시아군이 이들을 주로 총알받이로 활용한 점이 피해를 가중시킨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우크라이나는 최근 북한군 병사 두 명을 생포했다. 국정원은 이들이 북한 정찰총국 소속으로, 대외 공작 임무를 수행하던 병사로 파악했다. 한 병사는 우크라이나에 남길 희망한다고 밝혔으며, 다른 병사는 북한으로 돌아가길 원한다고 전해졌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들 포로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교환 협상 카드로 제시했다. 이는 북한군의 참전이 국제적 관심사로 부각되는 가운데, 북한과 러시아 간의 군사 협력에 대한 논란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다. 우크라이나군은 북한군을 과소평가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본다르는 “적을 얕잡아보면 항상 패배로 이어진다”며 북한군의 전투 능력을 인정했다.

북한군의 쿠르스크 지역 참전은 단순히 병력 제공을 넘어 러시아와의 군사적 동맹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되며, 국제 사회에서의 파장이 예상된다.

홍은혜 기자

美 성공회 주교, “LA 산불 감당 못 할 큰 손실” 애도

미국 로스앤젤레스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이 계속되고 있다. 일부는 진화됐으나, 새로 발생한 곳도 있다.

LA소방국에 따르면, 신규 화재는 9일 오후 LA 서쪽 벨 캐니언과 히든힐스 부근에서 발생했다. 케네스 산불로 명명된 이 화재는 규모 50에이커(0.2㎢) 정도로 보고됐으나 바람을 타고 빠르게 번지는 모양새다. 팰리세이즈 이턴에 이어 7번째 산불이다.

총 7개였던 산불의 수 자체는 줄었다. 전날 발생한 올리비아스와 우들리 산불이 나란히 진화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화된 산불은 비교적 소규모였고, 그밖에 팰리세이즈 산불 등의 기세는 여전히 맹렬하다.

가장 규모가 큰 팰리세이즈 산불은 현재 19,978에이커(약 80.8㎢) 면적을 태웠으며, 두 번째로 큰 이턴 산불은 13,690에이커(약 55.4㎢) 너비로 확산됐다. 두 산불 다 진화율 0%이며, 이턴 산불은 5명의 사망자를 냈다.

미국성공회 로스앤젤레스 교구 존 H. 테일러(John H. Taylor) 주교는 페이스북 영상을 통해 “우리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손실을 입었다. 샌 가브리엘 밸리와 퍼시픽 팰리세이즈 지역에 있는 우리 교회 성도들은 40~50명을 넘을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여러분은 분명히 알타데나의 역사적인 세인트마크교회(Saint Mark’s Church)가 손실됐다는 소식을 들었을 것이다. 퍼시픽 팰리세이즈의 세인트매튜교회(Saint Matthews Church)와 학교가 심각하게 손실됐고, 두 곳의 사제관도 손실됐다. 이런 보고가 더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게 돼 유감이며, 무엇보다도 우리는 여러분의 기도를 요청한다”고 했다.

세인트마크교회 캐리 패터슨 그린던(Carri Patterson Grindon) 목사는 9일 밤 교회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는 가장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 우리 지역사회 전체에도 고통스럽고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힘든 날이었다.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집을, 우리 모두는 소중한 교회 건물을 잃었다. 여전히 불확실한 점이 많으나, 앞으로 며칠 동안 우리는 서로를 지원하고, 예배하고, 함께 슬퍼하며 위로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LA에서는 산불 영향권 내 주민 18만 명에게 대피령이 내려졌다. 한때 영향권 밖 주민들에게도 실수로 대피령이 내려지면서 혼란을 초래하기도 했다.

산불로 인한 주택 및 사무실 등 구조물 피해는 6,500건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불길 확산 속도를 감안할 때 향후 피해는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사망자는 이턴 산불에서만 나왔으나, 역시 추가 인명 피해가 예상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9일(현지시각) JP모건을 인용해 이번 LA 산불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현재까지 500억 달러(약 37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 당선인은 8일 밤 트루스소셜(Truth Social)을 통해 성명을 내고 “미국에서 가장 훌륭하고 아름다운 부분 중 하나가 불타고 있다. 재가 되어 버렸다. 개빈 뉴섬(Gavin Newsom) 주지사는 사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혜진 기자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철야기도회(마지막주) 오후 8: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20(화-금) 오전 6:00(토)
EM예배 오후 1:00
수요예배 오후 7:30
송재호 담임목사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자된 삶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 (909) 595-3110 hnsla@hnsla.org

1부예배 오전 7:45
2부예배 오전 9:10
3부예배 오전 12:00
4부예배 오후 1:3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화-금) 오전 6:00, (토)오전 6:30
고태형 담임목사
ECO선한목자교회
교회여, 성숙하라!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909)591-6500 sunhanchurch.com

KM 주일예배 - 1부 07:30AM - 2부 09:15AM - 3부 11:00AM
EM 주일예배 - 1부 09:00AM - 2부 11:00AM
새벽예배 - 평일(월-금) 05:00AM - 토요 예배 06:00AM
김지성 담임목사
글로벌선교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생명의 공동체
23425 Sunset Crossing Rd Diamond Bar 91765
T. (909)396-4441 www.igmc.org

대예배 11:00 AM
아동부 (1~5학년) 11:00 AM
유아, 유치부 (2~5세) 11:00 AM
영아부 (24개월 이하) 11:00 AM
Youth (6th ~ 12th) 11:00 AM
수요 찬양 예배 수요일 7:30 PM
새벽기도회 화~토요일 6:00 AM
장수영 담임목사
언약 교회
은혜의 말씀, 사랑의 돌봄
1750 N. Towne Ave., Pomona CA 91767
T. (909)622-8815 https://covenantkoreanchurch.com

주일예배(KM) 오전 10:30 중,고등부(Youth) 오전 10:30
주일예배(EM) 오전 10:30 대학청년부(College) 오전 10:30
유년부(K-2) 오전 10:30 한글학교 주일 오후 12:40
초등부(3-5) 오전 10:30 새벽예배(화~토) 오전 6:00
최현규 담임목사
주님 CHURCH
주일예배 401 S. Palm St. La Habra, CA 90631
T. (626)901-919 Email : joonim0623@gmail.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LA 북부 지역, 라스베가스

주일 1부 오전 9:00 주일학교 오후 12:30
주일 2부 오후12:30 주중새벽기도회 오전 5:30
젊은이 예배 오후 2:00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6:00
김경진 담임목사
기쁜우리교회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125 S. Louise St, Glendale, CA 91205
T. (818)662-0400 www.joyfulccc.org

주일1부예배 오전8:00 중고등부(아가페홀) 오전11:00
주일2부예배 오전11:00 영어부예배(믿음채플) 오전11:00
유아유치부 오전11:0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6:00
초등부 오전11:00 Youth 금요모임(금) 오후7:30
유경재 담임목사
나성북부교회
성경을 배우며 성경에 충실한교회
8756 Woodley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893-8755

주일 1부 오전 8:00 중고등부 오전 10:30
2부 오전 10:30 한어청년 오후 12:30
EM예배 오전 10:3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6:00
이정현 담임목사
만남의교회
거룩한 믿음으로 도약하는 교회
18101 Lassen St. Northridge,CA 91325
T. (818)882-9191 F. (818)882-9777 www.churchmannam.com

주일 1부 8:00AM 중고등부 9:30AM/11:15AM
주일 2부 9:30AM 수요기도회 7:30PM
주일 3부 11:15AM 새벽예배 월~토 5:30AM
영아, 유아, 유치부 9:30AM/11:15AM
손창민 담임목사
에브리데이교회
예수로 충만한 교회
17037 Devonshire St, Northridge, CA 91325
Tel. (818) 832-6628 www.churcheveryday.org

1부 예배 오전 8:30 EM예배 (1부)오전 9:00
2부 예배 오전 11:00 EM예배 (2부)오전 11:00
금요어노인팀예배 오후 7:30 한어 청년부 주일오후 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오명찬 담임목사
웨스트힐장로교회
예수님처럼 믿는 교회(Believe Like Jesus)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주일 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10: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곽덕근 담임목사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주일예배 오후 12:30
주일 EM예배 오후 12: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화~토)
화요성경공부 오후 7:30
이건창 담임목사
발렌시아 샘물교회
25222 Wiley Canyon RD Newhall, CA 913211
Tel. (661)219-5434 www.sammool.org

밸리채플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금요영성집회 저녁 7:45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월-금 오전 5:30 / 토 오전 6:00
주일 3부 영어예배 오후 1:30
195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6T. (818)363-5887
이충환 담임목사
주안에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www.icccla.org
e-mail: iccc.office1@gmail.com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새벽예배(화-금) 새벽 6:00
주일예배 2부 오전11:00
교육부예배 주일 오전11:00
수요예배 저녁 7:00
박성호 담임목사
베이커스필드 ANC온누리교회
6700 Schirra Ct, Bakersfield, CA 93313
T. (661) 831-2262 / onnuribk.com/anc

주일예배 오전 10:40
목요예배 오후 7:00
토요새벽 오전 5:30
지동근 담임목사
베이커스필드 아름다운교회
4500 Buena Vista Rd, Bakersfield, CA 93311
T. (661) 472-5979

주일예배 1부 오전 8:15 (한국어)
주일예배 2부 오전10:15 (한국어, 스패니쉬)
주일예배 3부 오후12:15 (한국어,교육부)
새벽예배(월-토) 새벽 6:00
(7175 W Oquendo Rd, Las Vegas, NV 89113)
강일진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순복음교회
9525 W Maule Ave, Las Vegas, NV 89148
T. (702) 453-1223 / www.fglvchurch.com/

주일예배 1부 오전 9:45
주일예배 2부 오전11:30
유초등부 주일 오전11:30 수요예배 저녁 7:30
중고등부 주일 오전11:30 새벽예배(화-토) 새벽 6:00
임인철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중앙교회
3225 S Rainbow Blvd #200, Las Vegas, NV 89146
T. (702) 489-2999 / www.joonganglv.org

주일예배 1부 오전11:00
주일예배 2부 오후 2:00
EM예배 오전11:0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화-토) 새벽 6:00
송삼용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즐거운 제자교회
101 S Rancho Dr, Las Vegas, NV 89106
T. (702) 378-9828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11:00
교육부예배 오전11:00
수요말씀기도회 오후 7:00
토요새벽예배 오전 7:00 E. lvkcchurch@gmail.com
이정환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커뮤니티 교회
예수님의 제자되어 성령님의 열매 맺는 교회
622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252-0077 / lvkcc.org/lvkcc/index.php

주일낮예배 오전 11:00(설교 동시통역)
주일저녁찬양예배 오후 7: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화~토) 오전 5:30
조응철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갈보리장로교회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579-7576 / E. drjho@hotmail.com

주일 1부 예배 11:30 AM
주일 2부 예배 1:30 PM
수요예배 7:00 PM
새벽기도 화~토 5:50 AM
임명진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우리좋은장로교회
8425 W. Windmill Ln. Las Vegas, NV 89113
T. (702)685-2212 , woorijoeunchurch.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크리스천 비지니스

CHRISTIAN BUSINESS

Annie Moon
Insurance Agent
License #0B51378
MEDICARE(메디케어 보험)
213-503-1669
4055 Wilshire Blvd. #321,, Los Angeles, CA 90010
e-mail : 429annie@gmail.com

아이넥스 바디샵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자동차 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 넥스 입니다.
Inex AUTO COLLISION CENTER
Quality Body Work & Life Time Warranty
2811 Leeward Ave Los Angeles, CA 90005
E-Mail : inexcollisioncenter@gmail.com
213.383.1230
FREE ESTIMATE · TOWING

헤어 컷의 명장이 되고 싶으십니까?
* 헤어컷 배워 선교하실 분(무료)클레스
* 라이선스는 있으나 기술이 없으신 분
* 빠른 시간 안에 헤어드레서가 되고 싶은 분
* 격조 있는 Hair Cut을 구사하고 싶은 미용사
문의 (213)392-2323
- 아시아미용선수권 우승
- 아시아미용가협회수석강사
- 영국 알란 Beauty College 한국강사
- 독일 슈바츠코프(Beauty College) 초대 한국강사
- 한국국가대표 심사위원 트레이너 역임

드림 미디어, 교회 음향 무료 컨설팅
✓ 좋은 소리는 예배에 은혜를 더합니다
✓ 소리는 예배당에 맞춰 세팅해야 합니다
1. 구독 서비스 2. 교회 방문 3. Solo시스템 4. 상담 및 교육
323-643-3033
dmediacontents@gmail.com

주님마다
다양한 컨텐츠 제작
문의
323.265.0244
junimmedia@gmail.com
www.junimmedia.com

각종모임 주문환영(교회, 골프모임, 동호회...)
엄마의 정성이 한 가득 ~~
미리 주문해 주세요!
고기, 김치만두
찹쌀 오방떡
술빵
새우만두
떡갈비 정식
떡갈비 김밥
Cooking Mom
T. 213.378.8530
3660 Wilshire Blvd. #120 LA, CA 90010

F1 PLUMBING
업계 최저가격
드레인 클린 $30불 부터
213-434-8947
OUR SERVICES:
• Water Leaks & Pipe Clogs
• Drain & Sewer Cleaning
• Pipe Repair & Replacement
• Water Heaters
• Toilets, Sinks, Disposal

NATURE'S TREASURE
Innervis NUTRITION
건강을 선물하세요
부모님 선물로 딱이네~
기억력 개선
피로 회복
혈액순환 개선
면역력 강화
항산화 작용
5 목 넘김이 쉬운
비타민 D3 5,000 IU
120 베지터블 캡슐 $8.80
D3 5,000 IU 선샤인 비타민!
햇빛을 보지 않고, 주로 실내에서 생활하는 사람에게 나타날 수 있는 비타민D 결핍을 보충해 줍니다.
6
비타민 C500
180 베지터블 캡슐 $11.99
당신의 건강과 뷰티를 위한 필수 영양소! 필수영양소 비타민C와 칼슘, 그리고 노화 방지, 피부 개선, 항바이러스 등의 효능을 가진 로즈힙까지 함유된 제품입니다.
9
면역력
120 타블렛 $11.99
비타민 C, 비타민 D, 아연, 로즈힙을 사용하여 제조된 강력한 면역력 개선 제품입니다. 신체 면역체계의 다양한 세포 기능을 지원해 줌으로써 면역력을 기본부터 끌어올려 줍니다.
전화구매
213-434-1170



남가주 주안에교회(담임 김상현 목사)가 지난 12일 창립 2주년 감사예배와 권사임직식을 거행하며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재다짐했다. ⓒ남가주 주안에교회

남가주 주안에교회 창립 2주년

'착한 교회와 착한 성도' 향한 비전

'착한 교회와 착한 성도'를 모토로 창립된 남가주 주안에교회(담임 김상현 목사)가 지난 12일 창립 2주년 감사예배와 권사임직식을 거행하며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재다짐했다.

감사와 헌신의 메시지

김상현 목사는 설교에서 "지난 한 해 동안 모든 것이 은혜였다"며,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에 순종했을 뿐인데 교회에 큰 은혜를 허락하셨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공동체가 함께 성경을 읽으며 바른 결단과 기도를 배웠다"며, "새해에는 말씀을 사경하고 기도하며 예배와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신앙 공동체가 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미주 성결교단 총무 임근영 목사는 고린도전서 4장 1-2절을 본문으로 한 설교에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주제로 메시지를 전하며, "복음 전파와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충성된 증인의 삶을 끝까지 살아가자"고 했다.

임직식과 간증

임직자 대표로 인사한 신기리 권사는 폐혈증으로 고생하던 지난 2년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주신 은혜를 간증하며, "남가주 주안에교회의 사랑과 헌신으로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그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인용하며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했다.

권사로 취임한 정연규, 김유미, 신기리 씨의 임직식은 김상현 목사의 인도로 진행되었으며, 취임식 후 정신구 목사(성민교회 담임)와 이윤수 목사(증경지방회장)가 임직자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전했다. 모든 순서는 이윤수 목사의 축도로 마무리됐다.

교회의 비전과 사역

남가주 주안에교회는 2023년 창립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 온전한 성도됨'을 비전으로 삼고 사역을 이어오고 있다. 주일예배는 매주 오전 11시에 드리며, 교회의 위치와 연락처는 다음과 같다.

주소: 1465 W. Orangethorpe Ave, Fullerton, CA 92833
연락처: 714-452-1555
웹사이트: www.inchristusa.org

조셉 리 기자

한인 교회, 산불 피해 상황 나눠

LA에서 발생한 화재로 한인교회에서는 몇 가정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전해왔다.

ANC온누리, 교인 2분의 주택 전소

ANC온누리교회는 교인 2분의 집이 전소되었다며, 정부에서 제공하는 에어비앤비와 호텔에서 현재 지내고 있다고 전했다. 그외에 라캐나다 라크라센타 지역 교인들 집에 전기가 끊어졌던 것 이외에는 큰 피해는 없었으며, 집을 잃은 분들과 피해를 입은 직장동료, 이웃들을 돕는 긍휼헌금을 하고 있다.

사랑의빛선교교회, 교인 2 가정 주택 전소

이번 화재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인 알타데나 지역으로부터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사랑의빛선교교회는 이번 화재 상황에 대해 전해왔다. 윤대혁 목사는, 알타데나 지역에 사는 성도 2가정의 주택이 전소되었고 교회는 강풍에 의해 나무가 쓰러지고 천막이 훼손되었지만 교회 건물의 손상은 없었다고 말했다.

"성도 대부분들이 화재 위험 지역에 거하시기에 대피했고, 정전과 대기오염으로 거주지를 떠나 호텔, 자녀들 집등으로 옮기신 상황이다."

그는 "계속해서 산불이 새로운 곳에서 시작되고 있고, 진화율도 10-20% 미만이라고 한다. 주말부터 강한 바람이 시작된다고 해서 많이들 불안해 하고 있다. 언젠가 다 진압되겠지만 그때까지 LA와 많은 한인들과 교회 성도님들이 힘든 시간을 보내실 거라 생각된다"며 LA를 위해, 이민사회와 교회를 위한 기도를 부탁했다.



사랑의빛선교교회는 강풍으로 인해 나무가 꺾이고 천막이 날아간 것 외에 화재로 인한 피해는 없었다고 전했다. ⓒ사랑의빛선교교회

주은혜교회, 동역하는 성공회교회 피해입어

주은혜교회 최호년 목사는 산불로 집이 소실된 교인은 없으나, 함께 동역하는 성공회교회와 몇 가정이 피해를 입었다고 전했다.

"지난 주에 많은 가정들이 강제 대피령과 통행금지로, 집을 떠나 이제야 돌아오고 있습니다. 아직도 돌아오지 못하고 호텔에서 지내시는 가정도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집이 소실된 가정은 없지만 함께 한 지붕에서 동역하고 있는 성공회교회 몇 가정들은 산불 피해로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속히 산불 진화가 이루어지기를, 힘든 상황에서도 생명을 다하여 일하시는 소방관들을 위해 기도 바랍니다."

조셉 리 기자

남가주교협, 산불 이재민에게 온정의 손길

LA에서 동시다발 산불이 확산되면서 서울시 면적의 1/4 가량에 달하는 규모가 피해를 입었다.

남가주교협(회장 샘신 목사) 관계자는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을 돕기 위해 긴급 구호 물품인 마스크와 얇은 이불을 구입해 신속하게 전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샘신 목사는, 현장에서 지원 활동을 하는 분들로부터, '아이들이 그저 앉아서 울고 있는 경우가 많다'며 아이들을 위한 물품(과일주스, 간식, 기저귀, 분유, 게임 등)이 매우 부족하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전했다.

문의: 213-619-3111, 213-215-6029(남가주교협). 토마스 맹 기자



교협에서 마스트를 전달했다.

[사설] 인권위 파행사태, 인권의 反 인권화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 관련 안건 등을 다루기 위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전원위원회가 이에 반대하는 이들의 방해로 무산됐다.

인권위는 일부 위원이 발의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방어권 보장을 포함한 국가 위기 극복 대책 권고 건을 의결 안건으로 상정, 13일 전원위에서 다루려 했으나 안건 상정에 반대하는 이들이 안창호 위원장과 일부 의원의 회의장 입장을 막아서면서 결국 회의가 파행되고 말았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방어권 보장 관련 안건은 지난 9일 인권위 김용원 상임위원과 한석훈·김종민·이한별·강정혜 비상임위원이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의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이란 이름으로 발의했고, 안창호 위원장이 전원위 상정을 최종 결정했다.

안건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장 등에게 계엄 관련 재판에서 체포·구속을 엄격히 심사하고 보석을 적극 허가할 것, 검찰·경찰·공수처 수장 등에게 불구속 수사를 할 것과 구속영장 청구를 남발하지 말 것을 권고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철회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도록 하라고 국회의장에게 권고하는 내용도 들어있었다.

인권위가 윤 대통령에 대한 방어권을 보장을 포함한 문제들을 정식 안건을 다루려던 건 기본권 보장 차원이다.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헌법에 보장된 인간의 권리를 지키라는 상식적인 선의 권고 수준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걸 논의조차 하지 못하게 물리력으로 막은 건 납득하기 어렵다. 인권위 직원 100여 명이 회의 저지에 나섰다고 하는 데 인권위의 현주소를 말해 주는 부끄러운 광경이 아닐 수 없다.

이날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과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등 보수 성향 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 방어권 관련 안건을 다루려던 인권위 전원위가 이에 반대하는 이들의 물리력 행사로 무산된 데 대해 "언제나 탄압받거나 불이익을 당하는 이들의 인권을 강조하며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온 이들이 막상 자신들과 정치적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대통령에 대해서는 인권을 배제하는 야만적 모습"이라고 규탄했다.

이날 인권위 회의를 막아선 건 인권위 직원들과 일부 진보단체 회원들이다. 이들은 회의장 앞 복도에서 '내란동조 세력은 국가인권위를 당장 떠나라' 등의 피켓을 들고 "안건을 철회하라"며 시위를 벌였다. 일부 진보시민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 옹호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 독립기관이 인권을 짓밟는 내란 세력을 옹호하는 편향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런데 이들이 인권위원장과 위원들을 "인권 편향적"이고 "내란동조"라고 주장한 근거가 무엇인지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이날 인권위 전원위가 다루려던 안건은 헌법재판소장에게 탄핵심판 심리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방어권을 철저히 보장하라는 게 핵심이다. 계엄 선포 관련 다수 형사소송 진행을 고려해 심판절차의 정지를 검토할 것, 훈시 규정인 180일의 심판 기간에 얽매이지 말 것 등을 권고하는 내용이다. 그리고 사법부를 상대로는 체포나 구속영장 청구를 엄격히 심사하라고 권고하고, 수사 당국에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기초해 불구속 수사할 것과 체포나 구속영장을 남발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이런 내용들은 기본 인권 수칙에서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 대통령이 아니라 절도 강도범에게도 적용되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대통령에겐 적용되지 않는 기이한 상황에 대해 인권위가 문제를 제기하고 권고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들이 회의장을 가로막은 이유가 이게 다는 아닐 것이다. 인권위가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대해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고유 권한인 만큼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결심한 이상 세부적인 계획 수립은 잘못도, 비난받을 일도 아니"라고 한 부분과 "지금까지 국회가 야당의 의석 숫자를 무기 삼아 정당한 사유 없이 탄핵소추안 발의를 남용해 온 게 오히려 국헌문란"이라고 지적한 내용이 이들의 심기를 건드린 결정적인 요인이 아닌가 싶다.

하지만 이 문제는 안건을 발의한 위원들의 판단일 뿐이다. 회의 과정에서 논의를 통해 얼마든지 가다듬어질 수 있고 표현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으로 회의 자체를 틀어막은 건 비이성적인 폭압이다. 인권위는 정권이 바뀌고 위원장이 바뀌었음에도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인권위의 모습에서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그 증거가 지난해 11월 인권위 국정감사에서도 적나라하게 드러난 바 있다.인권위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인권위의 보고서에 '차별금지법' 추진이 '22대 국회의 역사적 행보'로 규정된 것과 국회의 협조를 요청하는 표현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반대 의견이 다수인 차별금지법에 대해 "국민 90%가 찬성 지지하는 법안"이라고 버젓이 기록된 것을 지적하며 "인권위원장 취임 후 첫 국회 업무 보고에 이런 내용이 걸러지지 않고 올라온 것이 과연 위원장 의사인지, 실무자 의견인지 확인하라"고 했다. 이에 대해 안 위원장은 본인도 모르는 내용이라며 당황해하는 모습이 그대로 영상에 비쳤다.

이 장면은 그동안 인권위가 인권활동가들의 독무대였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의 하나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평택 미군기지 반대 운동, 용산 참사, 쌍용차 해고 투쟁, 세월호 참사 등 현장을 지휘하던 인권활동가를 사무총장에 앉힌 것과도 무관하지 않다. 그가 안 위원장 부임 후 지난해 10월 사임했다지만, 그동안 인권위가 다수의 인권을 역차별하고 성소수자 인권에 매몰되는 등 정상적인 인권에서 이탈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음을 부인하기 어렵다.인권위 전원위 회의가 직원들의 물리력 행사로 파행된 건 역사에 남을 수치스러운 사건이다. 찬반 의견 표시는 할 수 있어도 회의 자체를 막는 행위는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오는 20일 예정된 전원위에서 상정안건과 함께 이 문제를 다뤄 반인권 행사에 휘둘리는 인권위의 오명을 반드시 씻어내야 할 것이다.

[김인수 목사의 오늘의 묵상] – 희년(禧年) – Jubilee



김 인 수 목사
전 미주장신대 총장

희년(禧年)은 성경에 나오는 용어로 jubilee라고 합니다. 안식년 7년이 일곱 번 지난 50년째마다 돌아오는 해로, 유대인들은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12지파에게 나누어 주신 가나안 땅에서 각각 자기 땅으로 돌아가고, 모든 농지는 1년간 휴식을 취하게 합니다. 또한 희년이 되면 땅과 집이 원주인에게 돌아가고 이스라엘인 노예가 해방되며, 부채(負債)가 면제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열두 지파에 분배한 땅은 영구히 팔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땅의 매매는 희년까지 한시적으로 이루어졌고, 희년 전이라도 매도자가 원할 경우에는 희년까지 남은 기간에 따라 적당한 값을 치르고 다시 소유하도록 허용했습니다. 개신교회는 교회적으로 희년을 기념하지 않지만, 가톨릭교회는 지금까지 계속 희년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희년에 할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는 일곱 안식년을 계수할지니...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 갈지며....."(레 25:8-10)

2024년 말에 가톨릭 교황 프랜치스코는 2025년을 희년으로 공식 선포하며,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에게 "두려움과 낙담으로 얼룩진 세계에서 기쁘게 희망을 전하는 사람이 되자"고 말했습니다. 가톨릭교회는 2024년 5월 9일, 로마 성 베드로 대성당 성문 앞에서 주님 승천 대축일 저녁 미사를 드리면서 "희망은 실망하지 않는다."(Hope does not Disappoint)를 통해, 2025년을 희년으로 선포하였습니다.

교황은 "우리 모두는 지치고 상처받는 일상에서 희망이 필요하다. 우리의 마음은 진실과 선과 아름다움을 갈망하고, 우리의 소망은 어떤 어둠 속에서도 포기할 수 없다. 우리는 인식하지 못하더라도 우리 안과 밖의 모든 것들이 희망을 갈망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추구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12월 24일 성 베드로 대성당 성문이 열리므로 희년이 시작되어 2026년 1월 6일 주님 공현 대축일까지 이어집니다. 그는 2025년 신년의 취지가 "신앙인들은 구원의 통로인 예수님과의 관계를 보다 친밀하게 가져야 하고, 교회는 항상, 어디서나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은 우리의 희망이라고 선포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50년마다 희년을 선포하고, 고난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빚진 사람들, 빚 때문에 남의 집에 종살이 하던 사람들을 해방시켜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하는 자비를 베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나 진정한 희년은 우리의 영혼이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의 삶에서 자유를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죄의 멍에를 메고 살고 있는 한, 우리는 자유인이 될 수 없습니다. 자유와 평화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금년 희년을 맞이하여 진정한 자유와 희망을 품고 살아갑시다. 샬롬.!

2025 미주기독대학박람회

TALBOT SCHOOL OF THEOLOGY BIOLA UNIVERSITY 신입생 모집
탈봇신학교 한국어 목회학박사 학위과정
Korean Doctor of Ministry
• 세계 최고의 교수진
• 영성 형성 집중 프로그램
• 실용적인 사역 대비
• 오프라인 수업
• 미국 비자 (I-20) 발급
카카오톡 채널: "탈봇" 검색
유튜브: "탈봇신학교" 검색
Email: talbot.korean.dmin@biola.edu
13800 Biola Avenue, La Mirada, CA 90639 | Tel : 562-903-4705

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 ABHE 정회원, ATS 준회원
• 기독교학과(BA), 목회학석사(M.Div), 상담학석사, 선교학석사, ESL, TESOL
•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 안수 후 미주 및 한국에서 사역 가능
• 목회학박사 과정 신설
• 입학상담: 조성호 박사 T(626)227-3454
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 : 이상훈 박사
1204 W. 163rd St.Gardena, CA 90247
Tel (323)643-0301, Fax(323)643-0302, www.aeu.edu/info@aeu.edu

인터넷 홈페이지 www.mbts.edu
for the Church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한국부
- 남침례교 6대 신학교(HLC & ATS 인가)
- 100% 한국어
- I-20 발급
- 저렴한 등록금과 장학 혜택
성경사역학철학박사
목회학석사
교육목회학박사
목회학박사
5001 North Oak Trafficeway., Kansas City, MO 64118
Tel.(816)414-3754 Email:ks@mbts.edu

CPU 19 77 캘리포니아 프레스티지대학교 CALIFORNIA PRESTIGE UNIVERSITY
(구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 학사과정, 석사과정, 박사과정
• SEVIS I-20 발행
• 연방정부 학자금 보조
• 온캠퍼스과 온라인 동시 프로그램
(562) 926-1023, ext. 300 www.ptsa.edu
15605 Carmeni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 ABHE, ATS 정회원
■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가능
■ 온캠퍼스와 온라인 프로그램
■ 신학, 상담학, 음악학, 간호학, 글로벌리더십 학위과정
■ 유아교육, 가정사역, 비영리단체사역 수료과정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213)388-1000 Fax:(213)385-2332
www.wmu.edu admissions@wmu.edu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TRACS 정회원 인준
▪특 전 : Sevis I-20 발행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 장학제도
▪성경학 학사 (B.A. in Biblical Studies)
▪목회학 석사 (Master of Divinity)
▪종교학 석사 (Master of Art in Religion)
▪목회학 박사 (Doctor of Ministry)
2660 W. 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714)527-0691(0692) Fax:(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에서
한영 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학위과정 - 목회학석사(M.DIV.) & 신학석사 (M.T.S)
상담문의: 909- 687-1649 / KEB@GS.EDU
WWW.GS.EDU Korean-English Bilingual Program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대학
신학사(BA), 석사:기독교 교육학(MA CE),
선교학(MA ICS), 목회학(M.Div), 선교학 박사 (D.Miss)과정
연방정부학자금 보조, I-20, 온라인 강의,
한국어 및 영어 트랙, LA Teaching Site 운영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714)525-0088(대표), 515-5885(입학상담)
이메일: admissions@gm.edu www.gm.edu

AZUSA PACIFIC UNIVERSITY Azusa Pacific Seminary
Transform the World with Christ
LA·오렌지 캠퍼스 M.DIV. M.A. D.MIN.
아주사 퍼시픽 신학대학원
입학문의 : T.(626)857-2200

글로벌침례신학교 Global Baptist Theological Institution & Seminary
미래의 하나님의 일꾼을 양성하는 요람
목회자와 교사의 사명이 다시 살아나는
Re-Vital Online Program
www.gbtis.org
학교주소 | 3108 Valley View Ln, Farmers Branch, TX 75234
이메일 | aurahelio@gmail.com
전화 | 508-826-5145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www.itsla.edu
ITS 신학대학원 International Theological Seminary
"미국연방인가기관 ATS정회원" 2006년 취득
▪ MATS 선교학 석사 ▪ M.Div 목회학석사
▪ Th.M 신학석사 ▪ D.Min 목회학박사
100% 온라인 ATS인가 학위 • 온라인 수업 제공
문의(626) 653 9547 EXT.# 112/admin.kor@itsla.edu

PEMF 와 Tera Hertz 테라헤르츠가 만나다! 테라 P-90

세계 최초의 최첨단 신기술을 이용한 30분의 기적!

무료체험하러 오세요!



자연요법, 대체 의학, 예방 의학을
전문으로 하는 의료 전문가들의 추천

우주인에게 사용되는 PEMF, 생명의 빛 테라헤르츠파로 생성된 올리라이프 테라P-90
PEMF(지구자기장) + THz(빛 파장) + Earthing (땅 에너지) 가 결합된 제품

1. PEMF 전자기 펄스를 발생, 발바닥에서 온 몸으로 열에너지 전달 혈액순환촉진에 도움
2. 테라헤르츠파가 피부에 침투하여 인체의 미세순환을 활발하게 해주는데 도움
3. 땅에 어씽한 것처럼 전자를 유입하여 활성산소를 중화하는데 도움을 줌

PEMF란?

지구자기장으로 NASA에서 우주인의 건강을 위해서 개발된 기술이기도 합니다.
우주에서 장기간 머무는 비행사들은 지구자기장의 영향권 밖에 있기 때문에 뼈와 근육의 손실이 심하게 됩니다. 이러한 우주비행사들의 회복을 위해 사용되어 왔습니다. 10여년 전만해도 지구로 귀환하는 우주비행사들은 90일간 PEMF를 받아야 했습니다. 우주에서 머무는 동안 근육손실과 뼈의 약화 등에서 정상적으로 회복되도록 PEMF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테라P-90의 의미도 최소한 90일간의 PEMF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테라 P-90을 30분 사용시 얻을 수 있는 동일한 성과

- 2시간 운동 성과 (근육활성)
- 뜸 10회 (체온상승)
- 부황 20회 (혈액순환)
- 마사지 30회
- 훈욕 1시간
- 피부 스켈링 60회 (리프팅)

테라 P90의 효과

- 세포에너지 생성에 도움
- 혈액순환과 산소공급에 도움
- 신진대사에 도움
- 독소배출(림프)에 도움
- 수면장애에 도움
- 통증과 염증에 도움
- 면역건강 보조
- 뇌건강과 인지능력 증가에 도움
- 우울증/스트레스에 도움
- 지방연소에 도움
- 피로에 도움
- 안티 에이징에 도움
- 시력향상에 도움
- 폐와 신장기능강화에 도움

FDA, SGS, OPMS, ISO 세계적으로 특허 및 승인 받은 제품 158개국에서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제품 하나의 디바이스로 온가족이 함께!

테라헤르츠와 PEMF의 시너지, 최첨단 건강 혁신! 두 가지 혁신 기술의 만남으로 완벽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세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의 체험수기

"저는 한의사로서 다양한 치료법을 경험해왔습니다. 테라 P-90를 사용해본 결과, 정말 놀라운 효과를 느꼈습니다. 이 기기는 깊은 조직까지 침투하여 통증을 완화하고, 빠른 회복을 지원합니다. 특히 관절염 환자들에게 통증 완화와 기능 회복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테라 P-90는 비침습적이며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어, 환자들에게 자신 있게 추천할 수 있습니다." - Y*** 한의사

"정형외과에서 테라 P-90를 도입한 이후, 환자들의 회복 속도가 눈에 띄게 향상되었습니다. 특히 수술 후 회복과 근골격계 질환의 치료에 효과적입니다. 전자기장이 깊은 조직에 작용하여 염증을 줄이고 통증을 완화시켜주며, 치료 효과를 빠르게 증진시킵니다. 실제로 환자들이 치료 후 더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하는 모습을 보면서, 테라 P-90를 강력히 추천합니다." - J****** 정형외과 의사

"테라 P-90는 물리치료에 매우 유용한 도구입니다. 근육의 긴장을 완화하고 혈액순환을 촉진하여 빠른 회복을 지원합니다. 제 환자들이 테라 P-90를 사용한 후, 통증이 줄어들고 운동 범위가 확장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치료 세션에 테라 P-90를 포함시키는 것은 환자들의 재활 과정을 크게 개선시키는 방법입니다." - M** 물리치료사

"피부과에서 테라 P-90를 사용하여 염증성 피부 질환과 상처 치유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전자기장이 피부 깊숙이 작용하여 염증을 완화하고 세포 재생을 촉진시킵니다 환자들의 피부 상태가 개선되고, 치료 후 회복 속도가 빨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피부 건강을 위한 혁신적인 치료 도구로 테라 P-90를 추천합니다." - L** 피부과 의사

grace.olylifeglobal.com 웹사이트 주문 후 2주 후 물건도착

문의 213-434-1170 무료체험 (오시기전 예약필수 월~목 : 오전 11시 ~ 오후 2시)

3055 Wilshirte Blvd #480 ., LA, CA 90010

*** 건강 비즈니스 파트너를 찾고 있습니다. 건강과 비지니스 기회를 원하시면 지금 연락주십시오.**

민종기 칼럼

나는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민 종 기 목사
충현선교교회 원로
KCMUSA이사장

2025년 1월 7일 저녁, 이곳 LA에는 엄청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제가 사는 곳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알타디나 지역, 태평양이 바라보이는 퍼시픽 팰리세이드, 실마, 할리우드 언덕 등에서 발생한 화재는 샌타애나 강풍을 타고 번져, 2,000채 이상의 집을 전소시켰으며, 여러 사망자를 냈습니다. JP모건사의 추정에 의한 손실은 500억 달러, 약 70조 원 이상이라 합니다.

돌아가신 분이나 집을 화재로 잃어버린 분들을 생각하면, 남은 사람이 당하는 고통은 정말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알타디나의 남쪽 패사디나, 서쪽 라카냐다에 사시는 분들은 이미 비상 대피령을 받고 집을 떠났으니 그 불편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패사디나로 일하러 가던 아들도 재택근무를 요청받았는데, 교회에서 일했다고 합니다. 저의 딸은 자기 집으로 오라지만, 아이들이 맡긴 고양이 2마리를 두고 집을 떠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3일 동안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집에서 촛불을 켜고 밤을 지냈습니다. '촛불의 미학'이나 '촛불의 낭만'은 전혀 고려사항이 아닙니다. 양초와 랜턴을 사고 건전지를 마련했습니다. 이전에 쓰지 않던 라이터를 점검합니다. 셀폰의 전원을 충전하느라 아내와 함께 강요된 자동차 드라이브를 해야 했습니다.

약 15만 명이 강제 대피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직장을 나갔다가 자기 집이 불탄 것을 후에 알았다고 합니다. 귀중품을 하나도 건지지 못한 것입니다. 대피령으로 피한 집사님 부부도 멀리서 아내에게 전화했습니다. 우리가 마침 근처 집사님 집에 들러, 전화하기로 했습니다. 라카냐다 거리는 신호등 불이 모두 나갔습니다. 사거리 길에 신호등이 꺼지자, 질서 정연하게 먼저 온 사람이 먼저 가는 "사거리 스탑"(Four Way Stop)으로 자동 전환되었습니다. 집사님의 빈집에는 집 철문이 반쯤 열려 있습니다. 바람에 부러진 나뭇가지로 마당이 어지러우나, 다행히 누가 침입한 흔적은 없었습니다. 근처 빈집 마당에는 멋진 오토바이 할리 데이비슨이 외롭게 서 있습니다.

사흘이나 타오르는 연기 사이로 1월 10일의 붉은 태양이 떠오릅니다. 새벽 뉴스에는 "떠날 준비를 미리 해야 한다"고 아나운서가 강조합니다. 무엇을 가지고 나갈 것인가? 여권과 증명 서류, 중요한 사진과 아내 몰래 모아둔 현금 그리고 컴퓨터를 생각해봅니다. 컴퓨터의 배터리가 다 소모되어 24시간 내내 여는 팬케익 하우스에 와서 전원을 사용하며 새벽의 태양을 맞이합니다.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암 7:2, 5). 아모스 선지자의 기도가 생각납니다. 아모스는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의 5가지 환상을 보게 됩니다. 첫째는 메뚜기 환상, 둘째 불이 육지를 태우는 환상, 셋째는 다림줄의 환상, 넷째 여름 과일 한 광주리의 환상, 그리고 다섯째는 제단의 기둥머리를 붕괴시키는 환상입니다. 3번째 이후의 환상은 그대로 집행되지만, 처음 두 환상, 메뚜기와 불의 환상은 선지자의 기도를 통해서 철회됩니다. 아모스 시절에 자비를 베푸신 하나님, 지금도 주의 백성들이 사는 이곳 LA에 긍휼을 베푸소서. 마침 주안의 친구들과 목회자들이 카톡으로 기도하고 근심하며 안부를 묻는 소식을 전해옵니다. 사랑으로 이 땅을 위한 기도를 시작합니다.

3일 동안의 화재와 대피령을 직, 간접으로 겪은 온 형제, 자매를 위해 기도합니다. 재난으로 인한 저들의 놀람과 아픔을 돌아보소서. 아버지여! 우기가 왔으나 비가 오지 않는 이 땅을 긍휼히 여기소서. 생명과 재산이 이처럼 광풍에 불타는 큰 재앙의 뜻을 깨닫게 하소서. 우리의 회개를 들으시고 자비를 베푸사, 생명의 단비를 우리에게 흡족히 내리소서. 언제라도 부르실 때 미련없이 떠날 준비를 하게 하소서. 그리고 평안한 일상에 감사합니다. 범사가 축복임을 다시 인정합니다.

이창민 칼럼

'Via De La Paz, 평화에 이르는 길'



이 창 민 목사
LA연합감리교회

2025년 1월 7일 아침, 남가주 하늘에는 낯선 구름이 잔뜩 떠 있었습니다. 평소에 쉽게 볼 수 없는 먹구름이 파란 하늘 사이에서 음산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었습니다. 또 산타모니카 쪽에서 뭉게뭉게 솟아오르는 짙은 회색빛 구름도 눈에 들어왔습니다. 처음엔 그저 이례적인 모양이라고 생각했던 구름은 퍼시픽 팰리세이즈(Pacific Palisades) 지역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한 연기였음을 나중에야 알게되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불이 때마침 불어닥친 강풍을 타고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갔습니다. 불길을 잡기 위해 사투를 벌이는 소방관들을 비웃기라도 하듯 바람에 이리저리 날린 불씨가 산과 들을 태우더니 나중에는 학교와 교회, 집과 가게마저 집어삼켰습니다. 불이 시작된 지 사나흘이 지나도록 진화율은 0%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산불은 패서디나/알타데나, 스튜디오 시티/할리우드 힐스, 실마, 웨스트 LA 지역으로 번지면서 큰 피해를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불을 피해 피난길에 나섰고, 집주인들이 떠난 자리에는 화재로 전소된 집들의 처참한 모습이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뉴스에 의하면 강제 대피령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18만 명이라고 합니다. 단전 조치를 당한 사람들은 불편하다는 말도 못 하고 추위와 불안에 떨면서 며칠을 지내야 했습니다. 불에 탄 건물이 처음에는 수천 채라더니, 시간이 지나면서 그 수가 점점 늘어 지금은 만 채 이상이 불에 타 없어졌다고 합니다.

화재가 시작된 퍼시픽 팰리세이즈는 말리부와 산타모니카 사이에 있으면서, 태평양이 내려다보이는 산등성이에 형성된 아름다운 타운입니다. 1921년 '감리교 남가주 연회(Southern Annual Conference of the Methodist Episcopal Church)'의 지도자들은 미래를 내다보고 퍼시픽 펠리세이즈 지역의 땅을 구입하여 새로운 타운을 개척하기로 했습니다. 타운이 생긴 후에 교회가 들어서는 것이 일반적인 순서인데, 이 지역은 교회가 먼저 생기고 나중에 타운이 만들어졌습니다.

당시 감리교 지도자들은 자연과 신앙, 예술과 교육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이상적인 커뮤니티를 꿈꾸며 이 지역을 설계하면서 교회와 학교를 세었습니다. 교회와 학교 주변으로 집들이 들어서면서 타운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지역이 감리교회에 의해 형성되었음을 알려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도로 이름에 나타납니다.

퍼시픽 팰리세이즈의 중심 도로인 '선셋 길'과 '비아 데 라 파즈(Via De La Paz)' 동북쪽에 있는 여러 도로의 이름은 알파벳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Albright, Bashford, Carey, Drummond, Embury, Fiske, Galloway, Hartzell, Iliff, Kagawa' 등의 도로 이름은 모두 감리교 목사 혹은 선교사의 이름에서 따왔습니다.

Albright St.은 '제이컵 올브라이트(Jacob Albright)' 감독의 이름에서 따왔습니다. 독일계 미국인이었던 올브라이트 감독은 독일 이민자들을 중심으로 복음주의 운동을 했던 감리교 지도자였습니다. Kagawa St.은 일본에서 기독교 사회운동을 이끌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했던 감리교 선교사 '카가와 토요히코(Kagawa Toyohiko)'의 이름에서 따왔습니다.

그렇게 100여 년 전에 감리교에 의해서 만들어진 퍼시픽 팰리세이즈가 이번 화재로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뜻하지 않은 화재로 소중한 사람과 삶의 터전을 잃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길 기도합니다. 퍼시픽 팰리세이즈 타운을 개발한 '커뮤니티 연합감리교회(Community UMC of Pacific Palisades)'가 있는 길의 이름은 'Via De La Paz'입니다. 그 뜻은 '평화에 이르는 길'입니다.

'평화에 이르는 길' 위에 우뚝 서 있어야 할 교회가 이번 화재로 사라졌습니다. 비록, 교회는 불에 타 없어졌고, 감리교 목사와 선교사들의 이름을 딴 길가의 집들도 모두 불에 타버렸지만, 불에 타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초창기 감리교 지도자들이 가졌던 새로운 세상에 대한 희망과 꿈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번 화재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함께 하길 바라며, 잿더미 속에서도 꿈과 희망의 씨가 피어나길 기도합니다.



Community United Methodist Church Palisades가 화재로 소실됐다. @Joel Pollak

이제는 안심하자!
치아 고민·걱정 끝!
소중한 내 치아를 위한 바른 선택을 원하신다면 올림픽치과로 오세요.
임플란트, 신경치료, 크라운, 보철, 틀니 등 모든 일반치과의 진료를 최신장비를 갖추고
친절하고 꼼꼼하게 진료하는 에스더 이원장님께 안심하고 치료받으세요.
3D 디지털 임플란트 도입해 운영, 첨단 장비와 기술력으로 빠르게 치료와 회복
임플란트 치과 체크 사항은?
원장님이 초진부터 수술, 사후관리까지 진료하는가?
임플란트 재료는 검증 받은 제품인가, 보증서가 있는가?
정확한 진단을 위해, 첨단장비를 보유하고 있는가?
경험이 풍부하고, 수준 높은 다양한 수술 사례가 있는가?
엄격한 소독과 위생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에스더 이 원장
올림픽 치과
OLYMPIC DENTAL CENTER
213.385.4011
2655 W. Olympic Blvd. #206., LA, CA 90006
(Olympic+Menlo Ave. 뉴 서울 호텔 건너편)
Vermont Ave
Menlo Ave
Westmoreland Ave
Olympic Blvd



ACTION CAMP에 오셔서 힐링하세요!

가족, 친구, 성도분들과 멋진 여행을 통해
기억에 남는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Action Camp 장은…













미국내 가장 좋은 **시설여건, 서비스**

1. 교회 수련회, 단체 할인 혜택
2. 단체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공연장과 야외 영화도 볼 수 있는 스크린 설치
3. 샤워장, 공연장, 카페, 수영장, 배구장, 농구장, 놀이터
4. 야외 파티와 행사를 할 수 있는 편의시설과 위락시설
5. 디럭스 캐빈(Deluxe Cabin), 오토 캠핑(RV), 인디안텐트(TeePee), 텐트(Tent)장 주변에 전기, 수도, 식탁, 하수도 시설
6. 회원의 경우 캠프사이트나 캐빈을 이용할 경우 할인혜택

ACTION CAMP
FAITH & HOPE

www.actioncamp.cc / larvresort.com

ACTION CAMP
- HEALING
- EDUTAINMENT
- SPORT
- MEDIA
- GREEN

전화예약 or 온라인예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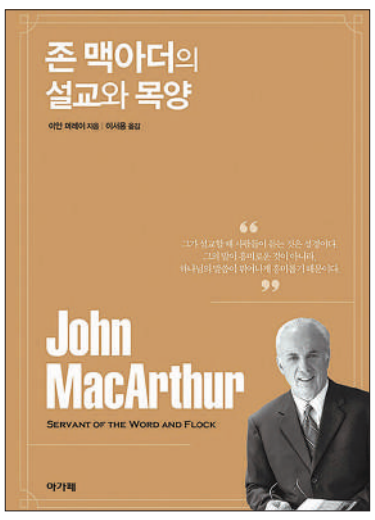
T. 661-268-1214

7601 Soledad Canyon Rd. Acton CA 93510

Scan me!

[크리스찬북뉴스 서평] 존 맥아더의 믿음을 본받으라

존 맥아더 목사의 가장 강력한 설교: '그의 삶'



존 맥아더의 설교와 목양

이안 머레이 | 이서용 역 | 아가페 | 304쪽 | 22,000원

**설교와 목양,
오직 한길만 걸어온 존 맥아더의 삶과 사역!**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_빌 3:14**

교회 출석률이 심각하게 줄어든 이 시대에, 어떻게 주일 아침 교회를 가득 채울 수 있는가? 여기 훈훈한 성격, 잘생긴 외모, 매력 그 무엇도 없는 설교자가 있다. 그가 가진 것은 진정한 권위에 대한 증언이다. 그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그가 설교할 때 사람들이 듣는 것은 성경이다

존 맥아더 목사는 가장 좋아하는 전기 작가로 이안 머레이를 언급한 적이 있다. 머레이는 마틴 로이드 존스의 전기로 가장 잘 알려졌고, 그 외에도 J. C. 라일, 조나단 에드워즈의 전기를 써냈다(부흥과 개혁사, 이레서원, 복있는사람 등에서 출간).

맥아더 목사는 이안 머레이가 쓴 전기를 사랑하는 이유로 "그는 단순히 한 사람의 인생을 설명하기보다 그 사람이 선포했던 신학을 성경의 관점으로 정확하게 분석하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여기, 그 이안 머레이가 쓴 존 맥아더의 전기가 있다: 2024년 아가페 출판사에서 나온 〈존 맥아더의 설교와 목양〉이 바로 그 책이다. 이 책이 번역되어 국내 보급된 경위도 매우 흥미롭다. 예수비전교회 담임 도지원 목사는 지난 12년간 〈교리와 부흥 콘퍼런스〉를 통해 마틴 로이드 존스, 조나단 에드워즈, J. C. 라일 등 훌륭한 개혁주의 신학자와 목회자를 소개해 왔는데, 2024년 선정한 인물이 바로 존 맥아더 목사였고, 그 시점에 맞춰 이안 머레이가 쓴 이 책을 번역 및 보급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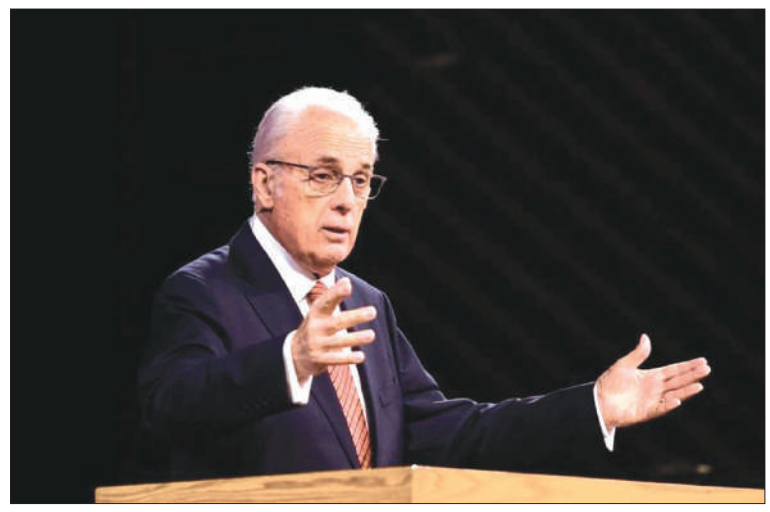
원서는 본래 2011년 5월 '배너 오브 트루스'에서 출간됐고, 초안은 2009년 존 맥아더 목사의 목회 40주년을 기념하는 자리에 설교자로 초청받은 머레이가 작은 헌사의 의미로 쓴 전기적 스케치였다(6쪽).

필자는 존 맥아더 목사가 총장으로 있는 마스터스 신학대학원에서 공부하던 중 이 역사적인 날 머레이의 설교와 그 설교가 초안이 된 원서를 모두 접할 수 있었다. 여전히 현재진행형으로 55년째 그레이스 커뮤니티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신실하게 선포하고 성도를 목양하고 있는 존 맥아더 목사의 책이 이안 머레이를 통해 한국에 보급된 것을 진심으로 기뻐한다.

저자 머레이는 이 책에서 몇 번이나 "아직도 개요를 조금 벗어난 정도의 전기에 불과하다"고 겸손하게 평가한다. 사실 그가 쓴 라일이나 에드워즈, 특별히 로이드 존스의 전기와 비교하면 정말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다. 하지만 인생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기 위해 계속 자라나고 있는 인물을 인생을 마무리한 사람처럼 평가할 수는 없다. 이 책은 존 맥아더의 도움 없이 주변에 있는 필 존슨과 여러 회중의 간증 등을 통해 만든 것이기 때문에(아마 깜짝 선물로 쓴 것을 기반으로 하다 보니), 언젠가 머레이가 그전에 쓴 전기처럼 더욱 완벽한 전기를 써내주기를 간절히 기대해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은 충분한 가치가 있다. 존 맥아더 목사에 관한 첫 전기적 작품이기도 하고, 그래서 겉으로 보이는 세계적 설교와 목양의 결과물에 가려 잘 보이지 않던 존 맥아더 목사의 개인적인 삶과 헌신과 노력, 또 그가 가장 중요하게 여긴 하나님 말씀과 그에 대한 충성심을 충분히 엿볼 수 있는 책이기 때문이다. 필자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마스터스 신학대학원에서 수학하고 그레이스 커뮤니티 교회에 참석하면서, 존 맥아더 목사의 설교와 목양을 직접 경험했다. 존 맥아더 목사가 어떻게 목사가 됐고, 어떤 개인적 어려움을 겪었으며, 교회가 다퉈야 했던 법정 문제도 들어본 적이 있다. 하지만 이 책은 그보다 더 다양하고 자세한 존 맥아더 목사의 어린 시절부터 목회를 꿈꾸게 된 계기, 그레이스 교회 부임 초창기와 중반기의 역사를 담고 있다.

아버지 잭 맥아더는 훌륭한 본이 되었고, 어머니는 계속해서 아들이 말씀 사역자가 되기를 기도했다. 운동에 남다른 재능을 보였던 존 맥아더 목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결국 항복하고 말씀 사역에 삶을 바치기로 결단했다.

신학교에서 파인버그 박사에게 "자네는 본문의 핵심을 완전히 놓쳤네"라는 말을 듣고 충격을 받은 사건은 유명한 일화다. 지금도 존 맥아더 목사는 그 사건을 종종 언급하며,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정말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연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게 만드는 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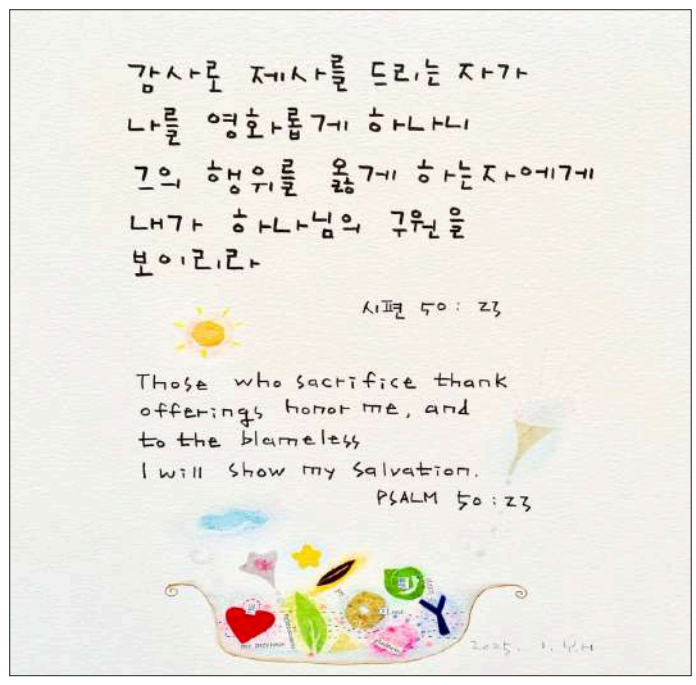
존 맥아더 목사. ⓒ쉐퍼드 콘퍼런스 제공

종이 된다고 했다. 한 편의 설교를 위하여 30시간 이상 연구하고, 성경이 담고 있는 교리와 원칙을 전달하고 그리스도의 영광과 은혜를 선포하기 위해 헌신한 지난 세월이 이 책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또 '그레이스 투 유' 사역을 통해 후원금 모집이 아니라 말씀을 나눠주는 일에 중점을 두고 일해 왔고, 라디오 사역과 문서 사역을 통해 하나님이 전 세계적으로 말씀을 사용하신 역사를 이 책은 말하고 있다.

한 성도는 존 맥아더 목사의 가장 강력한 설교를 '그의 삶'이라고 했다고 한다. 강단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하심을 선포할 땐 엄청난 권위를 가지고 소리치지만, 성도를 목양할 땐 그리스도를 닮은 목자가 된다. 이 책을 읽는 모든 독자들 역시 존 맥아더 목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 주고 너희를 인도 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히 13:7)"는 말씀에 순종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조정의
크리스찬북뉴스 편집인

■ **금주의 말씀 묵상 | 김영희 권사**



韓水山
모임은 "용수산"
고품격 한정식 코스 요리와
다양한 일품요리 전문 용수산
예약 문의
213.388.3042
950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6

PuenteHillsHyundai SUPER STORE
새해복많이받으세요
NEW 2024 HYUNDAI Tucson Hybrid SEL Convenience AWD
NEW 2024 HYUNDAI Santa Fe Limited
NEW 2024 HYUNDAI Palisade Calligraphy
NEW 2025 HYUNDAI Ioniq 6 SE RWD
0% APR Financing
60개월까지 할부 가능
스페셜 리스 프로그램 가능
Special Lease Program available
NEW 2024 HYUNDAI Ioniq 5 Limited RWD
PAUL KIM 714.331.3855
MIKE LEE 714.914.8414
JUSTIN KIL 213.999.3935
CHARLEY JEONG 213.276.8959
JAMES PARK 213.839.3332
HARLEY KIM 949.433.1378
America's Best Warranty
10-Year/100,000-Mile
Powertrain Limited Warranty
HYUNDAI Assurance
HYUNDAI
1-888-644-7114
LA한인타운과 오렌지카운티에서 20분거리
www.phhyundai.com
17621 Gale Ave. City of Industry, CA 91748
All prices exclude government fees and taxes, any finance charges, dealer preparation charges, and any emissions testing charges. Please contact Dealer for complete incentives and program details. Subject to change without prior notice. All prices, specifications and availability are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Contact Dealer for current information. Your actual mileage may vary depending on how you drive and maintain your vehicle. Actual mileage will vary with options, driving condions, driving habit and overall vehicle condition. All vehicles subjuct to prior sale. Expires 24hours after publication. Plus Dealer installed options

박욱주 박사의 **브리콜라주 인 더 무비** 디즈니플러스 시리즈 〈조명가게〉 (1)

〈조명가게〉속 '임사체험', 영혼의 존재 보여줬나

임사체험 4가지 양상 연구 결과
1. 죽어감 인식하는 초월적 경험
2. 심폐소생술 중 깨어나는 경험
3. 심폐소생술 후 깨어나는 경험
4. 생생한 꿈 꾸고 깨어나는 체험

OTT 디즈니플러스 시리즈 〈조명가게〉는 어두운 골목 끝을 밝히는 유일한 곳 '조명가게', 이곳에 어딘가 수상한 비밀을 가진 손님들이 찾아오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배우 주지훈과 박보영을 비롯해 김설현, 배성우, 엄태구, 이정은, 김민하, 박혁권, 김대명, 신은수, 김선화, 김기해, 박정표 등이 대거 출연한 강풀 작가 원작, 배우 김희원 감독의 드라마를 새해 첫 '브리콜라주 인 더 무비'에서 분석합니다. 이 드라마는 임사 체험(臨死體驗, near-death experience, NDE)을 다루고 있는데, 사고 등으로 죽음에 가까워진 이들이 사후 세계를 체험하고 돌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편집자 주

임사체험의 신빙성: 임사체험이란 실제 존재하는가? 아니면 환영에 불과한가?

〈조명가게〉는 유명 웹툰 작가 강풀이 2011년 하반기에 발표한 동명의 웹툰을 드라마로 영상화한 미디어믹스 작품이다. 2024년 12월 디즈니+에서 공개되어 평단과 시청자들로부터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은 평가를 받았다. 서사 전개의 호흡이 느리다는 단점이 있지만, 원작의 공포 분위기와 감상적 드라마를 비교적 적절하게 재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조명가게〉의 서사는 임사체험과 사후세계, 그리고 인간의 영혼에 대한 상상들로 채워져 있다. 늦은 밤 큰 버스 사고로 사망 일보 직전까지 간 이들이 하나로 연결된 심상의 공간을 공유하면서, 각자 삶과 죽음을 선택하는 과정이 이 작품의 서사 전반을 구성한다.

작품을 감상하며 두 가지 의문점이 떠올랐다. 첫째, 임사체험이란 과연 실제로 존재하며, 〈조명가게〉에 묘사된 것처럼 삶과 죽음의 갈림길을 시공간적으로 표상하는 경험인가? 둘째, 만일 실제 임사체험이 〈조명가게〉에 묘사된 것과 확연하게 다른 지점이 있다면, 그런 상상은 과연 어디로부터 유래한 것인가?

첫 번째 질문과 관련해 먼저 답하자면, 임사체험이란 분명 실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관한 의학적 자료와 임상연구 결과가 존재하므로, 임사체험을 단순히 환영이나 환각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울 듯하다. 그런데 실제 임사체험을 한 이들의 인터뷰를 보면, 〈조명가게〉에 묘사된 것과 여러 모로 유사한 광경을 목격하거나 비슷한 감각을 느꼈다는 증언들이 확인된다. 2023년, 아일랜드 SCIE 등재 의학/임상 저널 'Resuscitation' 191호에는 '소생술 도중 자각 - II: 심정지 중 의식과 자각에 대한 다기관연구(AWAreness during REsuscitation - II: A multicenter study of consciousness and awareness in cardiac arrest)'라는 제목의 논문이 게재된 바 있다.

25개 병원이 참여한 이 연구에서는 병원 내 심정지(in-hospital cardiac arrest) 사례 567명 가운데 심폐소생술로 소생한 53명을 주목해서 관찰했고, 이 가운데 인터뷰가 가능할 정도로 회복된 환자 28명을 대상으로 임사체험 관련 설문을 진행했다. 그리고 28명 중 11명이 심정지 중 확실한 임사체험을 했다고 증언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 11명의 임사체험 양상은 총 4가지로 나뉜다. 환자들 중에는 이 4가지 체험 가운데 두 가지를 같이 경험한 이들도 있었다.

첫째는 자신이 죽어간다는 것을 직접 알아차리는 초월적 경험이다. 11명 중 절반이 넘는 6명이 이 유형에 속한다. 이들은 심정지 상태로 소생술을 받던 중 자신의 아버지를 보거나, 죽어가는 자신을 옆에서 쳐다보거나, 자신의 할머니가 "되돌아가라"는 말을 듣는 경험을 했다고 증언했다.

둘째는 심폐소생술 중 의식불명 상태에서 깨어나는 경험이다. 11명 중 2명이 이 유형에 속한다. 이들은 심정지 상태인데도 자신들을 치료하는 과정이 그대로 보이고 느껴졌다고 증언했다. 셋째는 심폐소생이 끝난 직후 의식불명 상태에서 깨어나는 경험으로, 11명 중 2명이 이 유형에 속한다. 이들은 몸이 죽음에서 겨우 돌아온 직후임에도 의식과 감각이 생생하게 깨어 있어, 주위의 말을 들을 수 있었다고 증언했다.

마지막으로 넷째는 생생한 꿈을 꾸는 체험이다. 11명 중 3명이 이 유형에 속한다. 이들은 자신이 불법 주거침입을 해서 경찰에게 체포당한 꿈, 흥얼거리는 낚시꾼(혹은 어부)를 만난 꿈, 또는 매우 어두운 통로 같은 곳으로 누군가가 자기를 잡아끄는 꿈을 꾸었다고 증언했다.

임사체험의 양상: 〈조명가게〉의 임사체험 연출, 과연 적절한가?

〈조명가게〉의 서사 및 설정과 관련, 이 연구 결과에서 주목해야 할 이들은 자신이 죽음에 이르렀다는 것을 자각하는 초월적 경험을 한 이들, 그리고 생생한 꿈을 꾼 이들이다. 이들의 증언을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 보면, 자기 영혼이 몸 밖을 무중력 상태로 떠돌아다니는 유체이탈 체험, 사방이 무수한 회색 천막들로 채워진 광활한 평원과 협곡에 있었던 체험, 지극히 고요하고 어두우며 평화로운 분위기가 감도는 터널 안으로 끌려



하나의 공간에서 각자 생생한 임사체험을 공유한다는 설정의 공포 미스터리극, 〈조명가게〉

들어가는 체험, 삶의 온갖 감정과 가치들이 집약된 온화한 빛을 본 체험, 밝은 빛이 있는 매우 친숙하고 정감 있는 집으로 돌아간 체험, 그리고 누군가 돌아가고 싶냐고 묻자 가족들을 돌보기 위해 다시 돌아가야 한다고 대답한 체험이 기록돼 있다.

이 가운데 몇 가지는 〈조명가게〉의 인물 및 서사 설정과 유사하거나 일치한다. 우선 "삶의 가치를 담은 온화한 빛을 봤다"는 증언은 〈조명가게〉에 등장하는 삶의 존속을 의미하는 조명가게 전구의 광원과 유사하다. "고요하고 어두운 터널"은 작중 고등학생 허지웅(김기해 분)이 매번 지나가는 어두운 골목길을 연상시킨다. "밝은 빛이 있는 친숙하고 정감 어린 집"은 작중 작가 윤선해(김민하 분)와 박혜원(김선화 분)이 함께 사는 집을 떠올리게 한다.

심정지 중 '자신의 가족'을 만나거나, 그들로부터 "살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라"는 말을 들었다는 증언은 작중 여러 등장인물들이 사랑하는 가족, 친지, 연인의 도움과 설득에 힘입어 삶으로 다시 돌아가는 장면들과 유사하다. 이로 보건대 웹툰 및 드라마 〈조명가게〉는 생사가 불분명한 교통사고 환자들이 집단적으로 하나의 동일한 임사체험 공간을 공유한다는 것 하나만 제외하고는 대부분 현실의 임사체험 양상과 유사한 내용을 연출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로써 〈조명가게〉는 우리 인간이 죽어가는 바로 그 순간이나 죽은 이후에 영으로 그 존재를 이어간다는 초월적 영혼론에 대한 시청자들의 관심과 두려움, 경외심을 자극한다.

다만 이 작품은 영혼의 초월성을 단순히 보고하듯 묘사하거나 가르치듯 입증하는 태도를 취하지 않는다. 대신 〈조명가게〉의 연출은 시청자들이 죽음 앞에 놓였거나 죽음의 관문을 지난 영혼들의 처지와 상태를 능동적으로 추적하듯 상상하고 궁리하게 만든다.

이에 대해 인천대 한상정 교수(문화콘텐츠학)는 "강풀의 '조명가게'에 나타난 서사적 특성 분석"이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이 작품이 추리소설의 전통적 기법인 '미스터리 퍼즐 게임' 방식을 통해 죽음 앞에 놓인 자들의 운명과 사후세계에 대한 비밀을 추적해 엿보는 듯한 경험을 하게 해 준다고 평한 바 있다. 앞서 제시한 첫 번째 궁금증에 대한 해답은 나왔다. 임사체험이란 과연 실제로 존재하며, 〈조명가게〉에 묘사된 것처럼 삶과 죽음의 갈림길을 시공간적으로 표상하는 경험인가? 증언과 연구 결과에 따르면 그러하다. 임사체험은 분명 존재하고 그 속에 삶과 죽음을 가르는 강렬한 체험이 동반되는 것이 분명해 보인다. 또 〈조명가게〉는 이런 강렬한 체험을 어느 정도 실제 체험에 가깝게 묘사하고 있는 것이 확실하다.

이로써 〈조명가게〉는 우리 육신의 죽음 이후에도 영이 존속한다는 주장을 어느 정도 신빙성 있는 주장으로 여기게 하는 데 도움을 준다. 통상 의학적 소견에 따르면 심정지 상태에서는 인간의 두뇌가 그렇게 확실한 시청각적 경험을 할 수 있을 만큼 활발하게 작동할 수 없다. 즉 임사체험에 대한 보고들은 그것이 뇌가 자의적으로 만들어낸 환영이 아니라, 영혼이 감지하는 어떤 초월적인 경험일 수도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현상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는 것이다.

다만 〈조명가게〉의 임사체험 묘사가 임상적 관찰 기록과 여러 모로 일치하는 부분이 있다 해서, 인간의 의식과 영혼의 실상을 적절하게 묘사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무엇보다 여러 사람의 의식 혹은 영혼이 하나의 시공간에서 서로 소통하고 비슷한 체험을 공유한다는 설정은 어떤 신빙성 있는 근거도 찾아보기 힘들다.

이 '공유된 영적 공간'이라는 설정에 있어서만큼은 강풀 작가의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상상이 전면 개입됐을 것인데, 여기서 두 번째 궁금증이 생겨난다. 과연 작가는 저승과 이승의 교차점이라는 이 기묘한 영적 공간에 대한 상상의 단서를 어떤 세계관으로부터 가져온 것일까? 〈계속〉

남가주 한인 장로협의회
The Han-in Christian Elders in California

제50대 회장 이·취임 감사예배

이임회장 : 서경원 장로
취임회장 : 이득표 장로

- 일시 : 2025년 1월 26일(주일) 오후 4시
- 장소 : 나성 성결교회
  1324 S. Berendo St. LA, CA 90006
- 문의 : (562)972-4548
  (818)523-9147

남가주 한인 장로협의회
The Han-in Christian Elders in California

청빙

주님의 빛 교회는 1998년에 오렌지카운티에 세워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라가는 교회로서, 해외한인장로회(Korean Presbyterian Church Abroad)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2대 담임 목사님을 세우기 위한 동사 목사님을 청빙하고자 합니다.

■ 자격요건
1. 하나님과 영혼을 사랑하며, 헌신적으로 교회를 섬기실 분
2. 십자가의 복음 중심이며, 제자 되고 제자 되게 하는 주님의 빛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계신 분
3.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며, 사도신경과 장로교의 신앙고백에 동의하고, 그 믿음으로 목양하며 이끄실 분
4. 정규 신학대학원(M. Div) 학위를 가지시고, KPCA 교단에서 인정하는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으셔서 교단 가입이 가능한 분
5. 미국 거주 및 취업에 법적인 문제가 없는 분

■ 구비 서류
1. 이력서 (사진 포함)
2. 학위증명서(M. Div.) 및 목사 안수증명서 사본
3. 신앙 고백문 및 목회 철학
4. 사모님 신앙 고백문 및 간단한 가족 소개서 (가족사진 포함)
5. 설교 영상 2편 (1년 이내. 파일이나 온라인 주소)
6. 추천서 2부 (추천인이 직접 pdf 파일로 이메일 발송할 것)

■ 접수 및 문의
1. 서류 접수 및 마감 : 주후 2025년 2월 28일까지 (이메일, 카톡, 문자, 혹은 우편 접수)
2. 접수할 곳
   revhrju@gmail.com, 전화(562)896-9191(문자나 카톡으로 남겨주세요.)
   Lord's Light Community Church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0
3. 먼저 서류 심사 후, 청빙 후보 목사님들께 개별 통지(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5. 참고 홈페이지 Lordlight.org. Youtube : 주님의빛교회(Lord's Light Community Church)

주님의빛교회 청빙 위원회

中 공산당 교육서 "기독교는 심각한 해악"

급격한 교세 확장에 대한 경계심 피력

중국에서 2019년에 진행된 한 강연에서 당국자가 기독교에 대해 '심각한 해악'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의 기독교 박해를 주시하고 있는 한국순교자의소리(이하 한국 VOM)와 미국에 본부를 두고 있는 동역단체 차이나에이드(ChinaAid)는 "기독교가 사상 및 국가 안보 차원에서 국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중국 공산당의 오랜 우려가 이 발언에 반영돼 있다"며 관련 소식을 전했다.

한국 VOM 현숙 폴리(Hyun Sook Foley) 대표는 "한국 VOM과 차이나에이드는 중국 허난성 허비시 라디오 관리국이 지난 2019년 공산당원과 당원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던 중 '기독교가 중국에 대한 심각한 해악'이라고 선언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전했다. 허비시 라디오 관리국은 허난성 지방정부의 정치 선전을 담당하는 공식 기관으로, 두 기관은 기독교에 대한 해당 발언이 포함된 강의 내용이 중국의 소셜미디어 플랫폼 웨이보에 게시됐다가 이틀 후 삭제됐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불편한 진실'(Inconvenient Truths)이라는 블로그를 운영하는 중국 전문가 제니퍼 젱(Jennifer Zeng)은 웨이보에 게시됐다가 삭제된 사진들, 즉 반기독교적 발언이 담긴 슬라이드가 촬영된 사진들이 2019년 4월 22일 허난성 허비시 라디오 관리국이 개최한 특별 강연에서 나온 것으로 보고 있다. 젱은 "해당 발언을 한 당국자는 이 강연에서 '개신교 신자가 7,000만 명, 가톨릭 신자가 1,200만 명'이라는 주장을 인용해 '기독교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고 언급했다"고 지적한다.

현숙 폴리 대표는 "이 숫자가 실제보다 더 적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 정도면 중국 공산당원 수와 비슷하다"며 "대부분의 학자와 전문가들은 중국에 있는 전체 기독교인의 수가 많게는 1억 3,000만 명에 달한다고 보는데, 이는 2023년에 약 9,900만 명으로 보고된 중국의 공식 공산당원 수를 훨씬 뛰어넘는 수치"라고 했다.

젱에 따르면, 그 당국자는 기독교가 어떻게 확장됐는지 그 특징적인 면들에 관해 자세히 설명하며 "광범위한 분포, 강력한 추진력, 급속한 성장, 주도적인 공격 전략, 수많은 부당한 요구, 외국 세력의 지원"을 언급했고, "이러한 특징들이 사상적으로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한국 VOM과 차이나에이드는 허비시 라디오 관리국이 공식 계정을 통해 그 강연에 관해 다음과 같은 성명을 발표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최근 몇 년 동안, 기독교가 우리나라에서 걷잡을 수 없는 기세로 계속 확산돼 왔다. 우리는 모든 당원이 기독교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사상적으로 이탈하지 않도록 이 강연을 기획했고, 효과적인 성과를 거뒀다. 4월 22일 오전, 허비시 라디오 관리국은 '기독교가 중국의 안보에 미치는 중대한 위협'이라는 제목으로 특별 강연을 개최해 매우 긍정적인 결과를 얻었다."

기독교는 중국 헌법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5대 종교 가운데 하나지만, 공산 국가인 중국은 시민들이 기독교 신앙을 실천하는 것을 항상 규제해 왔다. 현숙 폴리 대표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기독교 신앙을 더욱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으면서도, 이런 정보가 특히 국제적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급급하다.

현숙 폴리 대표는 "중국 당국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중국 저장성에서 교회 십자가를 강제로 철거하는 활동을 대규모로 벌이는 동안, 기독교인들이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핍박 소식을 전 세계에 매우 빨리 확산시킨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들은 자기들의 반기독교적 활동과 행동에 관한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엄격한 조치를 취했다"고 했다.

현숙 폴리 대표는 "2019년 허비시에서 열린 강연은 중국 공산당이 기독교를 얼마나 심각한 위협으로 여기는지 보여 준다. 허비시는 허난성에 있다. 허난성은 기독교가 급속히 성장하는 곳이고, 박해가 2018년 이후로 특히 가혹해진 곳이다. 그러나 2019년 허비시 라디오 관리국의 강연에서 나타난 기독교에 대한 태도는 어떤 한 지방에 국한된 현상이 아니다. 2018년 이후 중국의 모든 성에서 수많은 기독교 모임이 폐쇄됐고, 그 가운데는 전국적인 규모의 교회도 더러 포함돼 있었다. 지방 도시 라디오 관리국이 중국 정부의 반기독교 활동에 참여한 이 사건은 국가 안보 이익에 이바지하려는 지방 단체의 모습을 전형적으로 보여 주는 사례이며, 중국 공산당은 기독교를 국가 안보에 대한 잠재적 위협으로 계속 간주하고 있다"고 했다.



중국 허난성.

김진영 기자

테러리스트에 납치됐던 나이지리아형제교회 목회자 2명 풀려나


(왼쪽부터) 이샤쿠 치와르 목사와 제임스 콰양 목사. ©EYN뉴스

나이지리아형제교회(Ekklesiyar Yan'uwa a Nigeria,이하 EYN) 지도자들은 지난해 12월 29일 나이지리아 북동부에서 납치된 두 명의 목회자가 1월 5일 풀려났다고 밝혔다.

크리스천데일리인터내셔널(CDI)에 따르면, EYN 회장 다니엘 음바야(Daniel Mbaya) 목사는 최근 음부르사 지나투(Mbursa Jinatu) 교단 대변인의 성명을 통해 "EYN의 제임스 콰양(James Kwayang) 목사와 이샤쿠 치와르(Ishaku Chiwar) 목사가 아다마와주, 송 카운티, 므빌라-말리부 마을에 있는 교회 구내에서 테러리스트들에게 납치됐다가 풀려났다"고 전했다.

음바야 목사는 "두 명의 헌신적인 하나님의 종들의 안전한 귀환을 기뻐하며, 집단적인 기도와 지원의 능력을 다시 한 번 상기하게 됐다. 교회 지도자들은 회원교회들과 기독교인들의 기도에 감사를 표했다"고 했다. 앞서 EYN 지도자들은 두 목회자의 구출에 대한 하나님의 개입을 간절히 기도해 달라고 요청했었다. 음바야 목사는 "EYN의 가족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은 이들의 안전하고 빠른 귀환을 위해 기도해 달라.이 사건은 우리 지역사회를 크게 흔들었고, 이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의 기도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들의 석방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다.

술레이만 응우로제(Suleiman Nguroje) 아다마와주 경찰청장은 성명을 통해 이들의 석방을 확인했다. EYN 공식 웹사이트에 따르면, EYN은 세계에서 가장 큰 형제교회 국가 단체다. 보코하람과 다른 테러리스트의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 세력의 공격이 있기 전, EYN 예배 출석자는 거의 100만 명이었다.

나이지리아에서는 기독교인과 그 외 사람들에 대한 납치가 흔해졌으며, 12월에는 나사라와주에서 적어도 5명의 기독교인이 납치된 사건도 있었다 .

오픈도어가 발표한 2024 기독교 박해국가(WWL)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나이지리아에서는 기독교인 납치 사건이 약 3,300건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다. 대부분의 납치는 무슬림 풀라니 목자들이 자행했다. 신앙 때문에 살해당한 이들도 2022년 10월 1일부터 2023년 9월 30일까지 4,118명으로 세계 최다였다 .

강혜진 기자

메디케어 전문 Agent
Annie Moon Lic# OB51378 문 혜 영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리세요!
치과 Up to $4,000~ Everyday Allowence(마켓, 유틸리티, OTC등)
안경, 보청기 Flex Card, Silver Sneaker + Extra Exercise 등등
메디케어만 가지신 분!
메디케어 & 메디칼을 동시에 가지신 분!
새로 메디케어를 받으실 분!
지방에서 이사오신 분 등!
모든 메디케어에 관한 정보와 문의는 애니 문과 상담하세요.



연락주세요! Annie Moon
T.(213)503-1669
메디케어 Plan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4055 Wilshire Blvd. #321 Los Angeles, CA 90010

• SINCE 1975 •
귀생당

소중한 분들을 위한 따뜻한 선물

[연말연시 건강지킴이 귀생당]

정성과 **마음**을 가득 담은
귀한 분들을 위한 **건강지킴이** - **귀생당**

한 해 동안 귀생당을 사랑해 주신 고객님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으로 준비한
연말연시 귀생당 건강지킴이로 소중한 분들께 따뜻한 사랑의 선물을 전해 보세요!

Special Price



귀생당
당간신구
혈당을 조절하고 면역력 기능을
강화해서 당뇨와합병증으로 부터
해방 되십시오!

Special Price



귀생당
후코이단
강력한 면역시스템 활성화로
항종양, 항궤양, 항바이러스등
질병으로 부터 자유로워집니다.

Special Price



귀생당
아이 눈 아이
피로한 눈, 노안, 녹내장,
백내장 등 각종 눈질환 개선에
탁월합니다!

Special Price



귀생당
후코이단 드링크
후코이단 드링크 한 병당 함량을
5400mg으로 높여 인체에 더 빠르게 흡수되고
효능은 더욱 강력해졌습니다.

Special Price



귀생당
동의비
허준의 동의보감의 비방으로 6년근
홍삼과 녹용, 지황등 20여가지 신비의
약초가 한 알에 모두 함축되었습니다.

Special Price



귀생당
홍삼100% 진생프레소
오로지 6년근 홍삼만을 진하게 담아
면역력증진, 피로회복, 당뇨개선,
동맥경화, 황산화에 도움을 줍니다.

Special Price



귀생당
홍삼+경옥고 홍력소
6년근 홍삼에 경옥고가 더해져
면역력을 키워 떨어진 체력을 회복시키고
골다공증, 기억력을 회복해 줍니다.

Special Price



귀생당
글루코사민
천연 콘드로이친의 상어연골과 지느러미로
만들어 고통스럽고 오래가는 각종 관절염에
탁월하고 위장에 부담없는 글루코사민입니다.

• SINCE 1975 •
귀생당

www.kiseidousa.com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 213.384.3333 / 800.909.0001

These statements have not been evaluated by the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This product is not intended to diagnose, treat, cure or prevent and disease.